



2010.12 Vol. 221 December







Contents

2010. 12 Vol. 221 December

02	내 마음의 시	햇살들이 불끈 불끈 웃습니다
03	연합회 소식	독도 학술세미나 국민의 시낭송의 밤
06	특별기고	경남도지회_ 제2회 경남도지사기 어린시 농악경연대회 2010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 경기도지회_ 제12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16	통하는 이야기	생활 속의 차문화
22	세계속의 우리 문화	세계유산_ 동의보감
24	24	세계유산_ 창덕궁
30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80년대 책 표지화 중심에 선 민중 판화가들
36	인식의 전환_ 부자담게 살기	예술과 돈
42	42	도시 컬러디자인 시대
48	한국의 예절	공통예절
52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59	59	우리 문화 소식
60	60	원장 동정



등록번호 서울라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한21-716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상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종수 | 편집위원 관호환(대안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원(광주광역시 지회장), 박덕규(연극대 교수), 한준원(정림문화원장) | 편집장 문진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9224 | 인쇄 태양재인파 02)2892-1111
 원고는 편집부의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 홈페이지에 보내드리거나 조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햇살들이 불끈 불끈 웃습니다

2019
산
김
중

이순이 된 수수꽃다리를 돌아
외진 구름 아래로 소피보려 갔습니다
나이 먹은 산들이 거기 모여 몸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끌고 온 기차를 눕혀두고,
한껏 포즈를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끝자리에서 고개를 내밀고
'허허' 구경나온 햇살처럼 웃었습니다
여기저기 불끈 불끈 아직 힘이 남은
산들의 바지춤이 풀리나 봅니다
파도 같은 산맥의 근육들이 마지막 달리기처럼
앞새 반짝, 실는 샅쪽 새끼 두엇 치나 봅니다
자을자을 햇살들이 머리를 흔들더니
늘어진 양쪽 불이 자못 팽팽해졌습니다
지구가 저물도록 꽃피우나 봅니다.

독도 학술 세미나

2010년 11월 16일(화)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중수)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전국 지방문화원장, 향토사가, 연구자, 공연자 등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및 독도 일원에 대한 문화답사와 '독도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의 특징은 그 동안 독도의 역사와 지리, 민속, 자연을 국제사적 측면과 영토사적 관점에서 보던 시각을 지양하고 일상의 삶을 통한 향토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리한다는 점이었다. 독도의 삶과 문화를 통해 우리 문화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삶의 양식을 인식하고, 문화로 행복해지는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독도에서 국대민안을 기원하다.

답사 첫날 11월 16일, 오랜 시간을 항해한 끝에 해질 무렵이다 되어서야 독도에 내렸다. 서쪽으로 해가 기울면서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세찬 바람과 함께 독도는 점점 검은 어둠 속에 잠겼다. 그나마도 울릉도 현지 사람들 말로는 대단히 운이 좋은 경우라고 말한다.

바로 하루 전만 해도 독도에 오는 배가 뜨지 못했다고 할 정도. 어둠이 내리는 독도에서 이곳을 지키는 경비대와 함께 조출하지만 그러나 간곡한 염원을 담아 독도문화선언, 태평제 봉행, 독도 근무자 위문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독도문화선언문〉은 김 종 광주지회장이 짓고, 한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고문이 낭독하였다.

독도문화 선언문

오늘, 우리는 드넓은 이 동해바다 한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유구한 역사의 섬 독도를 찾아 다음과 같은 우리의 다짐을 만천하에 널리 알린다.

하나, 우리는 역사의 섬 독도가 간직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온전하게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 독도와 동해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류하며, 독도의 문화적 가치와 동해바다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우리 겨레가 지켜온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여 후세에게 문화주권 의식을 갖도록 역사문화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오늘의 이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우리 바다의 문화역사를 찾는 작업에 더 많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1월 16일

한국문화원연합회 독도방문단 최중수 외 90명 일동

이어 태평제는 최중수 회장이 초헌관, 이상인 울릉문화원장이 아헌관, 이흥재 전주 정보영상진흥원장이 중헌관을 맡고, 대축에는 장현석 충북지회장, 집례는 박찬극 경북지회장이 맡아 봉행되었고, 축원문을 통해 민족의 염원의 조국통일과 민족번영, 그리고 문화 강국으로의 여망 달성을 청원했다.

독도 근무자들을 위해 경기소리보존회(경기도무형문화재 제31호 임정자 외)와 해외국악예술단(경기도무형문화재 제44호 오은명 외)이 출연해서 위문 공연을 가졌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독도 학술세미나 -

울릉도 생활문화에서 발견되는 “독도는 우리 땅”

둘째 날(11월 17일), 울릉군 대리리조트 강당에서는 독도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독도에 관해 논의 하는 자리는 으레 정치적인 시각과 영토에 관한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학술 세미나는 사람들의 생활문화와 향토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는 자리였다.

민경현 고려대박물관장은 <독도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의 기초발표에서 일본 북방 쿠릴열도의 4개섬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970년대까지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2년 러시아연방 국방부에서 출판된 수로지에서는 산호암초라는 뜻의 '리안꾸르'로 표기하고 있기는 하나, 러시아의 지도에 '독도'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표기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울릉도 독도의 역사적 환경과 의미>를 발표했다. 윤교수는 동해는 연해주와 사할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서 우리 역사에서 바다역사를 소홀히 해왔던 것을 탈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해문화의 성격과 위치, 역할, 그리고 향후 의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바로 일본이 오래 전부터 소위 '일본해 문화권'을 설정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온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다가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러 개척되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울릉도가 활발하게 역사활동을 했으며, 한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울릉도의 부속 섬이면서 생활공동체인 독도에 대해 제



기되는 문제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상세히 제시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울릉도의 고인돌과 선사시대의 유적지들이 울릉도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는 점, 서기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관련 기록, 울릉도에 전해오는 대마도와의 혼인동맹 설화, 930년 울릉도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頭) 등 두 사람이 공물을 바쳤고 이들에게 벼슬을 준 사실, 1930년대에 뗏목을 어업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 역사적으로 울릉도를 개척해온 자료를 제시하였다.

해양의 메카니즘이나 항법상 울릉도와 독도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21세기에 와서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대전보건대학 석대권 교수는 "독도·울릉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 민속문화를 보는 눈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생태민속으로 풀어본 독도의 이해와 울릉도 사람들의 민속문화를 통해 분석했는데 울릉도인들의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문화적 인지는 결국, '일본에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을 밝히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독도의 어업활동은 울릉도에서 출발하고, 울릉도민에 의해 독도에 대한 오랜 전통으로 이어오는 문화적인 인지가 곧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이다. 바다, 바람, 어류, 바위 식물 등 자연생태에 대한 어휘나 인지에 대한 조사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울릉도의 마을 단위 마을지 편찬을 통해 울릉도의 민속연구를 심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 한편으로 일본 측 마을 주민들은 민속학적으로 어떻게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두 편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장의 사회로 이기만 역사만들기 대표와 이송진 독도박물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리고 사진작가 김중만씨는 독도를 사진으로 담았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이 행사를 지원해 준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독도에서 태평제를 올려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문화예술인과 사진 작가 등의 참여를 통해 독도 학술세미나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입장을 지양하고 민속의 관점에서 바다의 명칭, 수산자원, 지명 조사 등의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된 것은 문화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독도 학술세미나 소식은 동아일보 11월 19일(금) A24면에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국민의 시 낭송의 밤



11월 25일(목) 오후 5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시인, 문화원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제8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박희태)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종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올해 8회째를 맞이했는데,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인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이근배 시인의 격려사 및 사회로 17편의 시가 낭송되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면 인사말을 통해 ‘시를 쓰려면 사람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듯 정치 역시 마찬가지라며, 우리 국회가 시인정치의 전통을 되살려서 격조있는 품격 높은 한국정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라 했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은 ‘시를 읊는 일은 삶에 여유를 선물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6.25전쟁 이후 연평도에 무자비한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들까지 희생되므로써 행사자체가 취소될 뻔했으나, 공연은 모두 취소하고 애도의 마음을 담은 시낭송만으로 숙연하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집에 가라 아들들아’를 읊으며 침울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전사자 조문을 다녀온 뒤 늦게 참여하였고, 이주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국회의원(시인) 등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애송시 및 자작시를 읊었다.

시인으로는 김송배, 허형만, 김년균, 김종섭, 노희정, 박정희 시인 등이 출연했고, 특별손님으로는 단아한 외모로 친근한 어머니상을 보여주고 있는 방송인 고두심씨가 <삼다도>를 ‘방언’과 ‘표준어’로 낭송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해 온 마하노바 아셀이 김용호 시인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한국시인협회 제10회 전국교백일장에서 장원한 원성은 학생이 <소금>을 낭송하였다.

시는 험난한 세상에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시원한 감로수가 될 수도 있다. 공자는 말한다. “그대들은 왜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시는 사람에게 감흥을 돋우게 하고 모든 사물을 보게 하며, 대중과 더불어 어울리고 확확하게 하며, 또 은근한 정치를 비판하게 하는 것이다. 가깝게는 아버이를 섬기고, 나아가서는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시에서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시로써 새나 짐승, 풀, 나무들의 이름도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를 지은 남구만은 이렇게 말한다.

“시가 교화를 위한 것이라는 뜻은 본래 운유 돈후한 시 정신으로써 성정을 다스려서 풍화(風化)를 이루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여 세상의 도리를 평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남도지회

제2회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지회장 조훈래)는 지난 11월 9일(화) 함안 함주공원 내 열린문화마당에서 제2회 어르신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식과 경연대회, 시상식 등 3부로 나누어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자축하고 풍요로운 수확의 절기를 맞아 “흙에서 태어나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경문화의 철학을 통해 농사를 지으면서 노래와 춤, 음악으로 삶에 신명을 더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취지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대회는 경남도 내 10개 시군이 참가했고 함안문화원 주관, 경남도, 경남도의회, 함안군, 한국문화원연합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대회의 참가자격을 경남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20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 각 지방문화원의 추천을 받아 참가하였다.

대회가 열린 함안은 옛 6가야 시절 아라가야의 옛 터이고, 고려 성종 때 함주로 불려졌다. 함주공원은 고속도로 함안나들목 입구에 있는 공원으로 함안문화원과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공원 옆 하천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산책용 다리도 있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바로 인접한 충의공원은 함안출신의 항일독립운동 애국자 및 6·25 전쟁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충의탑 및 위패 봉안각을 설치하여 이 곳을 역사공원화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높으신 뜻

을 기습 깊이 되새겨보고, 자라나는 새싹 및 군민에게는 역사교육의 장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이날 개인상은 김해문화원 상쇠 이명선씨에게 돌아갔는데, 김해문화원 풍물단은 김해 지역의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원 들 중에서 특히 풍물에 관심이 많은 단원들로 올해 창단되었다.

장려상은 창원 의창동 농악단, 양산 천지울림 풍물단, 함안 화천농악, 거창 원학골 풍물패에게 돌아갔다. 창원 의창동 농악단은 매주 화, 수요일 이틀간 30여명의 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호응을 받고 있다. 천지울림 풍물단은 경남의 실버팀으로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9월 29일에는 진주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경남 시,군 우수동아리 발표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차지한 바 있다.

함안 화천농악은 9월 그믐과 상달(10월)초하루에 마을의 큰 성황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며, 농악을 올린데서 비롯되었다. 거창 원학골 풍물패는 정월 지신 밝기를 시작으로 영농발대식, 어버이날, 민민의 날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풍물패이다.

특별상은 창원시 진해구 천자봉 풍물패, 김해문화원 풍



물단이 수상하였다. 천자봉 풍물패는 1993년 창립하여 2008년 제32회 가야문화축제 가야농악경연대회 대상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왔고 지역사회 봉사과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동상을 받은 합천군 실버풍물단은 그동안 실버문화학교를 통해 꾸준히 연습을 해 오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교육사업인 이수자 강사 파견사업으로 집중교육을 받아 합천문화원의 전속 풍물단으로 양성되었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합천의 대표적 풍물단이 되었다.

은상에는 의령군 지정전통농악대는 1960년대 경남농악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모심기, 논매기, 타작 등을 경연하는 농악대이다.

금상을 수상한 고성군 영남 농악단은 고성문화원이 2006년도에 창단하여 진주, 삼천포, 통영, 고성 등 영남 농악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성 농악은 옛날에 전쟁 때에는 군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전해 내려온 것이라 한다.

이 날, 영예의 대상은 남해군 화전농악단이 차지했다. 화전(花田)은 경남 남해군의 옛 이름이다. 남해를 대표

하는 화전 농악은 자연 발생한 전통 농악으로 매우 경쾌하고 빠른 가락이 특징이다. 12채곳이 매력적이며 육지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가락이다. 남해 군민들의 안녕과 번영,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농악으로 제42회 개천예술제 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경연 심사결과를 안병렬 심사위원장이 발표했는데 각 풍물팀의 특징을 재미있게 풀어 해설해 줌으로써 박수갈채를 받았다. 경연에 나온 풍물 팀들의 특징 일부를 되새겨 보면 전통 농악인데 포수 복장에 호루라기를 들고 나온 창원 팀은 기량이 지난해 보다 상승되었고 상쇠의 역할이 훌륭했다는 평이었다.

거창 풍물단은 포수가 사냥한 동물이 토끼가 아닌 개였다는 점에서 즐거운 웃음을 선사했다. 의령풍물단에서 사용한 소품 중에는 소가 있었는데, 수컷이라는 상징성을 강하게 표현해 민속놀이가 지닌 풍자와 해학의 요소를 갖추었다.

김해천자봉 풍물단의 실력은 좀 더 연습하면 전국대회에 나가도 될 만하다는 평을 받았고, 대상을 받은 남해문화원은 훌륭한 소품 구성과 장구잽이의 상모가 제대로 훌륭하게 갖추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르신 농악경연대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장인 조훈래 함안문화원장을 비롯해 지역의 내빈들이 다수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 주었다. 조훈래 지회장은 대회를 통해 “오늘 이 행사는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팀이 신명나게 즐기고 단합하느냐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이희충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전한 김두관 도지사의 축사에서 “어르신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전통예술이 활성화 되고 후손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리고, 하성식 함안군수, 김석만 함안군의회 의장, 이혜숙 함안교육장, 조근제 경남도의회 의원, 이성용 경남도의회 의원, 제명철 군의회부위원장, 이성호, 조용득 군의원이 참석하였고, 도 내 각문화원의 원장들이 참석해 경연의 열기를 더해 주었다.

2010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열려

8
9

2010 December Vol. 221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
우뚝 서는 남도의 세상



지난 11월 10일(수) 여수시민회관 강당에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남도지회(지회장 김학근)주최로 2010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시민회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굴비골 영광’, ‘희망 찬 땅끝 해남’ 등 각 지역을 상징하는 특징을 적은 배너가 세워져 있고, 행사를 안내하는 이들은 고운 한복으로 차려 입고 행사에 참여하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시민회관 안에 들어서니 향토사 연구 서적들과 문화원에서 펼쳐지는 사업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비치되어 각 지방의 특색을 한 눈에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사동(士童)네품물단’의 풍물연주와 길놀이로 시작하여, 150여명이 시민회관 앞 마당에서 강강술래를 선보였고, 행사장 안에서는 ‘여수시립국악단’이 출연해 풍물놀이, 화관무, 판소리와 민요 공연 등을 펼쳐 전남이 명실상부한 예술의 고장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옥승현 여수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내빈들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개호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것을 비롯해 정인화 여수 부시장, 전남도의회 송대수 부의장을 비롯한 이광일, 최철훈, 기도서, 정영식 도의원, 신병은 한국예총 여수지회장 등 지역 내빈들과 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 행사를 주최한 전남지회 김학근 지회장, 김종 광주 지회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해 주었는데,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점은 전남지회 소속 22개 문화원의 원장님들이 전원 참석하여 전남지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기념식은 청암대학교 정희선 교수의 “전남문화 발전과 활성화 방안” 특강과 내빈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조재인 여수문화원장의 <문화비전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어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박준영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와 2010전남문화원상 시상, 제22회 전남향토문화상 시상, 제12회 전남향토문화연구 논문 시상이 있었고, 김학근 전남도지회장의 기념사와 내빈 축사, 최종수 회장의 격려사와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됐다. 2010 전남문화원상은 지방문화원(법인) 3곳과 문화원 이사 및 사무국장(개인) 6명에 대해 시상을 했다. 이들에 대한 시상은 김학근 지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결정되었고, 수여한 상패는 명품 도자기로 알려진 강진에서 청자 매병으로 제작되었다.

여수문화원 부원장이기도 한 정희선 교수의 특강에서는 문화유산과 음식문화 등이 한류문화에 나타난 전남 문화의 우수성을 분석하고 이를 세계화 할 수 있는 특징적 요소들을 확인해 주었다. 김치와 역사적 인물등을 통해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전남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면서 문화원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문화원의 향후 과제로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와 문화유산의 정리와 보존관리 철저, 전문화된 회원의 영입과 활동 기회 부여, 문화원의 정체성 확립 등이 제시됐다.

김학근 지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 센터로서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도 변화해야 하고





그 역할이 어느 때 보다는 중요하다. 참신한 기획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지역문화원이 되어야 한다. 남도의 모든 곳에 문화의 향기가 넘치도록 하여, 지역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선도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제안했다.

이게호 전라남도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남 지역문화원이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화의 세기’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를 통해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고 생활화 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 문화원이 더 큰 날개를 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 정인화 여수 부시장은 환영사에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역의 고유문화와 향토사가들의 생생한 지식, 남도 예술인들의 예술적 재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문화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국가가 산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더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우리 가슴에 더 깊이 문화가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날 기념식에 격려사를 한 최종수 회장은 지방문화원에서 그동안 가꾸어 온 향토문화가 매우 높은 가치성을 평가 받게 되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동아일보사와의 MOU체결, 정부의 종합방송 채널이 준비되는 상황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 고유문화를 더욱 가꾸고 발전시켜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전남의 문화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은 그 지역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땀겨부러”이다. 행사장을 찾아가면서 어느 길 옆에 보았던 간판 하나가 이 고장을 대표하는 말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이제 여수에서 2012년에 열리게 될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 정원박람회’가 멋지게 펼쳐져 세계문화를 선도하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2010 전남문화원상 수상자

1. 우수 지방문화원

여수문화원(원장 조재인) | 전라남도지사 상
곡성문화원(원장 김학근) |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상
담양문화원(원장 김귀수) |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장 상

2. 유공 지방문화원 임직원(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장상)

강석규(고흥문화원 부원장)
이용희(강진문화원 부원장)
김하룡(원도문화원 사무국장)
최권진(함평문화원 사무국장)
김진노(장성문화원 사무국장)
최성환(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제22회 전남 향토문화상 수상자(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장상)

최재양(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전. 화순향교 전교)
최필근(광양문화원 부원장)
이승형(향토사학자)

제12회 전남 향토문화연구 논문공모 수상자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장상)

최우수상 | 윤여정(나주문화원 이사)
“나주목 객사 금성관의 건립과 기능 변화”
우수상 | 정서경(목포대 대학원 국문학과)
“〈은파유필〉과 〈남해문견록〉을 통해 본 유배인의 도서지역 민족의식 비교”
장려상 | 최재양(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400년 논쟁 〈진주성 축서루 중 삼장사〉 호남인으로 결론”

경기도지회

제12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개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오용원 평택문화원장)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용인에 있는 금호 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문화가족 합동연수를 개최했다. 이 연수는 경기도내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전통문화의 중요성 및 보존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정보 교류와 협동심 고취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해마다 개최되는데, 금년에 12회차가 개최되었다.

이 연수에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김학규 용인시장, 경기도청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등 내빈들과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직원 및 임원, 회원, 그리고 시군 문화업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고, 당면한 지방문화원의 발전방향과 지향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서로 토의하는 광장이 마련되었으며, 문화 관련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 지역문화 발전 의지 표명

첫 날, 11월 4일(목)에는 김성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식에 이어 축하공연과 특강, 그리고 분임조별 토의 순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개회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한춘섭 성남문화원장(경기도지회 부회장)의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 오용원 지회장의 인사 말씀,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격려사, 도지사의 축사와 용인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오용원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가 발전 할 수록 인간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 발전과 창달을 이끄는 지역문화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게 되므로 오늘과 같은 연수가 지역문화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말하고 이 연수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 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 최중수 회장은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문화의 시대에 정치적 이념보다 문화가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경기도는 빠른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도시형문화 프로그램과 우리 고유의 향토문화를 접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선도하고 있으므로 소중한 향토문화를 더욱 잘 가꾸고 보존하는 한편 문화창조의 주역이 되도록 앞장서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한 경기도청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가족 합동연수가



우리 문화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김학규 용인시장은 환영사에서 “문화적 불균형 해소와 문화나눔 정책 등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연수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 미래의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리라 믿는다.”고 88만 시민을 대표해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용인 문화 발전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특강을 통해 생각해 본 우리문화

이번 연수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동국대 예술대학원 최종민 교수의 “우리 문화와 우리 음악”, 이대영 한국문화예술진흥연구원장의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세상”, 신봉승 극작가의 “국가 그리고 지식인들의 역사인식” 등이었다. 최종민 교수는 우리 민족의 뛰어난 음악성이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노래를 접해온 것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왔다고



진단하고, 현재의 교육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창의성을 증시한 한국문화의 특징을 교육에 반영하고 우리 음악언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전통을 교육 내용에 많이 포함시키고 그 속에 스며 있는 창조적인 삶의 방법을 다시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영 원장은 20세기 문화의 특징이 권위, 규범,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배타적 냉전시대(HOT)' 였다면 21세기 문화의 특징은 '참여와 연대의 시대(COOL)' 라고 보고 소수자문화, 참여문화, 여성문화, 대중문화, 물신숭배, 변방주의가 새로운 주류로 등장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놀이, 여가, 유희의 시대로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참여의 시대, 인터넷 매체의 등장과 상호작용의 시대라고 보면서 놀이가 사회문화적으로 흡수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신봉승 극작가는 역사적 인물들이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역사를 인식했는가를 이야기 하면서 옛날 공직자들이 구체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전통이 오늘에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일을 열어가는 지름길인 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우리가 주목할 인물로는 최치원, 설총, 안향,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성혼, 이이, 조헌, 송시열, 송준길, 김장생, 김집, 박세채 등 18명의 선현들을 통해 이 선비들의 학문과 인품을 본받는 것이라 하겠다.

문화원 동아리 한 마당

이번 연수에는 각 문화원의 문화활동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수원문화원(원장 유병현)의 모듬북 동아리 '打드락' 은 개회식에 축하공연을 선보였는데, 이들은 지난 6월 열린 제7회 수원화성 주부 국악제에서 장원을 수상한 바 있고 지난 6월에는 중국 위헤시 초청으로 공연을 가진 실력을 갖춘 팀

이다. 다이나믹한 리듬과 열정적인 동작으로 청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공연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를 자랑하는 마당이 펼쳐졌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에서는 '실버악단'이 추억의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2009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악기를 취미로 배우는 60세 이상의 어른들로 구성되었다. 한국문화원의 날 식전행사 초청공연, 포천사랑 페스티벌 축제, 명성산 억새꽃 축제 등 연주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찬사를 받고 있다.

안산문화원(원장 김봉식)의 '안산경기민요단'(단장곽승수)은 1997년 안산문화원 부설 단체로 창단되어 유옥선 상임지도 선생을 중심으로 전국명창대회 입상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창단 후 13년 동안 200여회의 국내외 공연을 가질 만큼 전국적인 지명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문화가족 합동연수회에서 경기민요 메들리를 들려주었다.

안양문화원(원장 장석재)의 통기타 연주 동아리인 '칼립소 통기타' 팀은 2006년부터 안양지역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음악이 필요한 곳이 음악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날 연수회에 이미연, 조미순, 이경진, 최화숙, 이원욱씨가 출연하여 통나무집, 편지 등의 기타연주를 선보였다.

구리문화원(원장 김문경)의 '진도복춤'은 진도셋김국전 기능보유자 박병천 선생이 진도지방 복놀이를 재구성하여 신명으로 춤을 이끌어 가는 강렬한 북가락과 유연하고 섬세한 장구 가락에 맞춰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섬세한 춤사위를 서울 경기지방에 전파하고 있다. 배정인, 이순재, 이은영, 이원례, 임혜련, 마제충, 김원자, 정명주, 김금조, 김혜자, 강혜경, 이주은씨 등은 구리시의 각종 행사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난 10월 21일에는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 자원봉사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의왕문화원(원장 이종훈)의 '팬플룻 오카리나 앙상블 팀'은 2006년 팬플룻과 오카리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순수 동아리로 각종 시 행사와 봉사연주를 통해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분임토의를 통한 지역문화 정보교류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에서 각 문화원의 정보교류 활동으로 손꼽히는 것이 분임토의였다. 분임토의는 연수 첫날 정해진 90분이라는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고, 둘째 날(11월 5일) 분임조별로 사례 발표를 가졌다.

분임토의는 지방문화원의 권역별 네트워크 방안 및 구체적 사업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문화원장, 사무국장, 직원, 임원 및 회원을 총 망라한 대토론회 형식으로 추진되었고 토론의 결과는 도지회 차원에서 향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토론의 효율적 진행과 가시적 결과물 도출을 위한 수퍼바이저 및 사회자 역할 강화하여 추진된 점이 특징이다. 분임토의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지방문화원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원장 중심의 발언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한 지역문화의 발전 방향 토의, 회원간 교류를 통한 문화소통 방안이 논의 되었다.

제1권역은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이 수퍼바이저를 맡고, 용인문화원 김장환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남, 용인, 이천, 구리, 양평, 여주, 광주, 하남 등 총8개 문화원이 참여했다.

제2권역은 정상중 시흥문화원장이 수퍼바이저를 맡고, 김포문화원 백한승 사무국장의 사회로 부천, 안양, 고양, 안산, 광명, 과주, 김포, 시흥 등 총8개 문화원, 제3권역은 오근택 오산문화원장이 수퍼바이저를 맡고 박성복 평택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수원, 과천, 화성, 오산, 군포, 안성, 평택, 의왕 등 총8개 문화원, 제4권역은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이 수퍼바이저를 맡았고 동두천문화원 박용철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남양주 등 총7개 문화원이 참여했다.

생활속의 차 문화

1. 차(茶)한 잔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사람과 사람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 현대생활, 행여 누군가 옆구리를 콕! 하고 찌르면 화산같은 화(火)가 터져 나오기 일보직전. 하던 일 모두 던져버리고 시원한 풍경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고 싶지만, 막상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렇다. 우리에게겐 잠시 여유가 필요하다. 바로 차(茶) 한 잔의 여유.

최근 들어 차(茶) 마니아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성스레 다기 잔에 차를 우려 여유롭게 차 한 잔을 하고 있노라면 커피나 술을 마실 때와는 조금은 다른 정서적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차생활의 정서적 안정감과 여러 유익함을 이용하여 깊은 정신수양의 방편으로 삼아 다도(茶道)라는 하나의 사상과 수행체계로 승화시켰다. 최대한 맛있고 편안하게 차를 마시려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방법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이어진다. 또 이러한 노력 중에 자신의 행위와 마음 상태를 온전히 알고 있으려는 깨어있음이 유지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경의 마음이 배어나오게 된다. 여기에 차(茶)의 여러 유익한 효능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한 잔의 차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손을 거치게 된다. 차나무를 키우기 위한 차농(茶農)의 땀과 손길. 수확한 찻잎으로 차를 만들어내는 제다인의 손길. 정성으로 차를

우려내는 주인의 손길. 감사의 마음으로 차를 마시는 손님의 손길... 여러 손길들을 거치면서 차는 마음을 담은 의미로 거듭난다. 작지만 작은 찻잔속의 차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문화가 녹아 담겨있다. 한국 녹차의 대부분은 덫음차로 만들어지는데, 덫는다는 것은 큰 가마솥에 오로지 차만을 넣어 고온에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덫음'은 순우리말로 약재, 곡식, 찻잎 등을 첨가물 없이 그대로 볶아서 익힌다는 의미를 지녔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냄비에 깨 볶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겠다. 찻잎을 뜨겁게 덫어서 식히고 다시 덫는 일련의 과정은 찻잎이 차로 진화하는 우주적인 시간이다. 같은 차나무에서 나온 찻잎도 제다(製茶)공정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차를 다루는 사람은 몸도 마음은 청결하게 단도리하고 작업에 임하게 된다.

차문화의 대표적인 동양삼국 한·중·일의 차 만드는 법은 각기 다르다. 중국은 솥에서 덫음으로 건조하면 조청녹차, 벌을 쪼어 건조하는 쇠청 녹차, 기계를 사용하거나 밀폐된 방에서 건조하는 홍청 녹차, 열증기 살청 박식으로 건조하면 증청 녹차가 되는데 각기 다른 맛을 낸다. 반면 일본은 찻잎을 증기에 쪄서 익히는 증제법을 주로 쓰는데 시기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덫음차와 증제차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졌지만 덕음차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최근에는 기계를 이용한 제다도 많아지고 있지만 사람 손이 기계보다 더 섬세하기에 맛과 향은 한결 은은하다. 우리 차는 격식을 많이 따지지 않는다.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라는 말처럼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마시면 된다.

그러나 차를 우리는 주인은 차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그 첫 번째로 차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물’을 준비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고, 두 번째 차에 어울리는 찻그릇들을 점검할 것이고, 또 어떤 차를 마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마음을 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차맛을 우려내기 위한 알맞은 물의 온도와 적절한 차우리는 시간을 염두에 두게 된다. 적당한 차의 분량, 물의 온도, 우려내는 시간은 맛있는 차를 우려내는 기본 요건이기도 하다. 음식을 만들 때의 손맛이 중요하듯 차마실때에도 특별한 손맛이 필요한 것이다.

차를 마실때에는... 찻잔이 작다고 한손으로 한번에 마시는 것 보다는, 귀한 마음으로 만들었을 제다인(製茶人)과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두 손으로 찻잔을 잡는 것이 좋다.

따듯한 찻잔의 기운이 양손을 통하여 온몸으로 느껴질 것이다. 차의 색과 향 그리고 맛을 느껴보고, 입에서 삼키고 난후 몸에서 느껴지는 차가 주는 좋은 기운을 감상한 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 찻잔 속에는 자연이 녹아있다. 태양과 대지의 기운을 한껏 머금은 차와 물의 조화. 그것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경이로움. 입속에 머금은 자연. 굳이 기차에 몸을 실지 않아도, 차 한 잔으로 우리는 자연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이현주 행다(行茶)문화연구소 · 선임연구원

2. 쉽게 즐기는 차(茶)

‘다도(茶道)’에서 차를 우려 마시는 전과정을 일러 ‘행다법(行茶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행다(行茶)의 일반적인 특성은, 첫째, 차의 품성에 맞춰 차 고유의 맛을

내는 데 정성을 들이며, 둘째,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분수에 맞는 넉넉함이 있으며, 셋째, 물과 불, 차와 다구(茶具), 손님차자리에 초대받은 사람과 주인손님을 대접하는 사람 등이 모두 하나가 되어 더불어 즐기는 것이다. 또한 물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우면서 동선(動線)이 간결하고 과장됨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행다례(行茶禮), 즉 차예절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리에서 너무 격식을 강조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 다도 예절과 자연스러운 찻자리의 분위기는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쉽게 차를 즐기기 위해 차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차 우리는 법

좋은 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형, 향기, 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한다. 녹차는 겉모양이 가늘고 광택이 있으며 잘 말려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연황색이 나는 묵은 잎이 적어야 하며, 손으로 쥐었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 상등품이다. 차는 제조시기에 따라 첫물차(4월20일~5월10일에 채엽), 두물차(6월중순~6월하순에 채엽), 세물차(9월하순~10월초순채엽) 등으로 구분되는데 첫물차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높고, 두물차나 세물차는 차의 성분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차를 구입할때는 용도나 마시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차를 처음 마시는 사람은 구수한 맛이

있는 현미녹차나 약발효하여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발효차나 오룡차가 좋으며, 사무실에서 피로회복이나 두뇌회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실 때는 녹차가 적당하다. 가정내에서 가족끼리 모여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맛과 향을 음미 할 수 있는 황차나 청차 계열 어울리며, 야외나 운동경



기중에는 휴대용 다기를 사용하거나 간단한 PET제품을 이용하여도 좋다. 차를 우리가 위해서는 차와 물과 이 두가지를 넣어 우릴 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차를 우릴 때는 도자기로 만든 찻주전자인 다관을 사용한다. 물은 돌 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를 으뜸으로 치는데 일반 수도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하루밤 정도 채워서 쓰면 좋고, 보통 생수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우선 물을 100℃로 끓이면서 다구를 정돈한다. 물식힘사발, 찻주전자, 찻잔 순으로 사용할 다기를 뜨거운 물로 한번 행구는 동시에 예열 해준다. 100℃의 물을 물식힘사발에 담아 약간 식힌다. (발효시킨 차는 식힘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찻주전자에 1인당 2g 안팎의 차를 넣은 뒤 물식힘사발에서 약간 식은(70℃)정도로 물을 찻주전자에 넣는다. 30초 정도 두었다가 잔에 따른다. 잔에 따를 때는 한번에 다 따르지 않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옮겨가며 조금씩 잔을 채워 색과 향과 맛을 고르게 한다. 찻잔은 왼손으로 받친 뒤 오른손으로 살며시 감싸쥐는다. 먼저 차의 빛깔을 보고, 다음 향기를 맡은 뒤 맛을 보도록 한다. 한잔을 보통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에 나누어 마시도록 한다.

녹차 마시기

차의 성분은 계절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로 첫물차는 아미노산이 많아 감칠맛이 강하고, 두물차나 세물차는 카테킨이 많기 때문에 떫은맛이 강하다. [녹차의 떫은맛은 상쾌하고 개운한 떫음이다.] 또한 너무 뜨거운 물로 차를 끓이면 떫은 맛 성분이 빨리 우려나 차의 맛이 떫고 낮은 온도의 물로 천천히 우리면 감칠맛이 강한 차가 된다. 따라서 차의 종류에 따라 물 온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맛있는 차가 되

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꾸준히 차를 마시면서 차 각각의 정당한 물의 양과 물의 온도를 몸소 체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한국형 다관을 사용하며 다구들은 따뜻한 물로 미리 예열한다.

우롱차(오롱차) 마시기

우롱차(오롱차)는 녹차와는 달리 잎이 등글게 말려있고 가열처리에 의해 향기성분이 잎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물 온도를 높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보온력이 강한 사기류 다관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며 다관을 따뜻하게 하여 탕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녹차와 달리 발효된 차들은 일반적으로 세차(洗茶)를 하는데 첫 번 우려낸 물은 마시지 않고 잔을 예열하는데 이용하거나 버리도록 한다. 좀더 쉽게 일상속에서 차를 가까이하고 싶다면, 표일배로 불리우는 휴대용 다구를 사용한다 된다.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차를 우려 마실수 있다. 차를 가까이 하는 생활의 지속은 곧 현대 생활의 건강한 웰빙(Wellbeing)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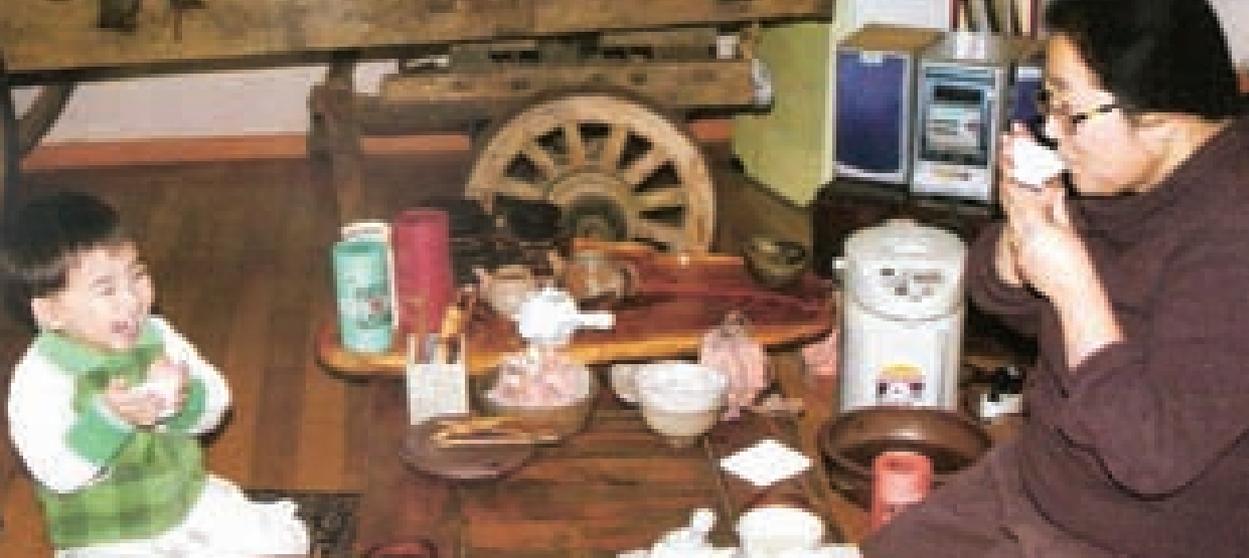
이남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예절·다도학 박사수로

3 '차상' 을 중심으로 모이자!

잃어버린 밥상머리 교육을 위하여...

지각을 모면하기 위해 허둥지둥 책가방을 챙겨들고 나가는 아이에게 엄마는 우유한잔이라도 마시게 하려고 건네 보지만 우당탕탕 집밖으로 뛰어 나가기 무섭다. 맛벌이로 이른 아침 집을 나서야하는 엄마역시 아침 챙기는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전날 회식으로 늦은 귀가를 한 아버지는 입안 깔깔하다며 그냥 나가시고...

언젠가부터 우리시대의 아침풍경은 이렇듯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듯하다. 어릴 적 왁자지껄 소란스러운 아침풍경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난다. 아버지 출근시간과 우리가 학교 가는 시간이 엇비슷하여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지곤 했으니 말이다. 누군가가 긴 시간을 두고 나오지 않고 있으면, 밖에선



빨리나오리는 등, 배가 아프다는 등 난리가 난다. 그러나 아침식사를 하기위해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려면 일단 가족모두가 모여 앉아야 하고,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셔야 드디어 식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사실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고 늦게 사용하고는 그리 의미가 없었다. 가족이 함께 다 모이는 시간. 바로 아침 식사시간이다.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셔야하고, 먼저 밥상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숟가락 젓가락은 한꺼번에 쥐지 않으며, 반찬을 뒤적이지 않는다. 등등 밥상머리에서 지켜야 할 일들은 꽤 많았다.

그뿐이 아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야하고, 잔잔한 심부름거리들을 명반기도 한다. 그리고 때때로 이웃집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한다. 그야말로 그 당시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가정교육은 오로지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웃어른들이 자녀들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지적해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생활 속의 자연스런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의 몸과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배어들게 하는 교육으로, 바로 생활교육이며 사회교육이자 현장교육이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듯하여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자녀들의 온몸에 배어들게 하는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아침식사 자리 외에는 가족끼리 함께 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나 모처럼 함께 식사를 하더라

도 47%가량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으니, 그야말로 오로지 밥을 먹기 위한 식탁이지 그 밖의 밥상머리 문화는 사라져버린 셈이다. 게다가 식탁의 출현이후로 아침식사도 출근시간별로 개인식사를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앞으로 아침식사를 하기위해 가족 모두가 모인다는 말은 흘러간 옛이야기쯤으로 묻혀질수도 있겠다.

요즘 부모들은 "크면 어렵히 알아서 잘 할텐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세상에는 '크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과 '애써 가르쳐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 있다. 후자가 바로 가정교육·인성교육이다. 우리 부모세대들의 사랑이 지금만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 앞에 조아리고 앉아야만 했던 것일까. 아니다. 좋은 대학 진학 못지않게 인간으로서 기본을 익히는 것을 우리의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사회에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그 역할이 주어지게 마련이지만 기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발붙이기가 어렵다. 이젠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실력뿐 아니라 인성을 먼저 평가한다고 하니 그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밥상은 물러가고 밥상머리 교육을 필요하고... 이를 대신할만한 것이 없을까? 마치 대답이나 하는 듯 거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찻상이 배시시 웃음 보낸다. 생긴 것도 밥상보다 더 넓직한 것이 편안해 보인다. 찻자리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집안에서의 찻자리는 가족을 한곳으로 결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게 한다. 바로 밥상머리 문화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저녁때나 주말에 가족끼리 종종 차를 마시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전에는 통 말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지아빠랑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하니까 이틀녀 석도 좋은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나도 식구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는데 차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동안 답답했던 일도 풀어지고 가족끼리 훨씬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유은혜, 주부, 43세)

가족 찾자리를 가지는 한 주부의 말이다. 요즘처럼 대화의 부재 시기에 찾자리를 통하여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게다가 찾자리라는 것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언제나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가족찾자리가 대중적인 문화는 아니지만 밥상머리 문화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가족문화가 아닐까?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동안 나를 위해 차를 우려 마셨다면, 오늘부터는 내 가족을 위해 찾자리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세리 민족다도문화연구소 소장

4. 옛 사람들의 차향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풍류(風流)를 좋아하여, 지인과 함께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 솔바람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와 거문고 연주, 시 한수 멋지게 읊조리기, 흥

에 거워 춤을 추는 등 사람의 소리를 어울려 즐겼다.

풍류는 그야말로 우아하고 멋스러운 정취(情趣)이다. 옛 풍류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도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단연 뛰어난 작품은 단원 김홍도와 같은 해 태어나 화원으로 지내며 쌍벽을 이루었던 화가 이인문(李寅文, 1745-1824)이 그린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이다.

시원하게 탁 트인 자연의 모습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그림의 화제를 살펴보면, ‘몇 그루 늙은 소나무 사이로 물이 흐르니 골짜기 가득 푸르고 상쾌한 바람이 인다. 높은 다락집에 푸른 안개 영롱하다. 탁자에 기대어 두루마리를 펴는 이는 이인문이요, 의자에 걸터앉아 시를 길게 읊조리는 이는 신위다. …’ 이밖에도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로 거문고를 내려놓고 난간에 기대앉아 있는 단계 김영면과 이인문 곁에서 손으로 그림을 잡고 굽어보는 임희지가 있다. 그야말로 동시대의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모여 향연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림 한 구석에서 화로에 불을 지피 차를 끓이는 다동(茶童)의 모습이다. 다관에 차넣어 끓이니 연기가 한올 한올 하늘로 오르고 차한사발은 풍류객들의 품미를 더 해준다.

자연과 함께 감성을 즐긴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짐을 좋아한다. 일본인들이 아름다운 나무와 폭포, 자연을 자신의 마당에 작게 만들어 옮겨 놓는 것을 즐긴다면, 우리의 정서는 북

짐을 가지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그림에서 보이듯, 자연과 더불어 즐기며 오동나무의 거문고 자락, 시낭송, 주변모습 화폭에 옮기기 등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여준다. 거나하게 노닌 이후에는 차(茶)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술방을 장작삼고 깨끗한 자연수로 차를 끓이니 그 향과 맛이 어떠했을까? 무엇보다도 한바탕 논 이후 흥에 취한 마음을 정리정돈 하는데에는 차가 제격이었을 것이다. 현대 우리들의 놀이 모습을 어떠한가? 많은 사고 모임의 뒷풀이는 과도한 음주로 이어지기 쉬운데, 2차 3차로 행진하는 술자리는 즐거움을 떠나 뒷날의 두통이 기다릴 뿐 '문화'는 사라진듯하다. 다행히 몇몇의 차(tea)마니아들은 술자리와 찻자리를 조화롭게 가져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모임을 가진다고 하니 본받을 만하다.

사무사(思無邪)

또한 옛사람들은 차(茶)를 그저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바르게 하는 기회로 여겼는데 특히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사무사(思無邪)와 일맥상통한다. 사무사란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말로, 차를 마시고 사무사의 경지를 노래한 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색의 '다후소영(茶後小詠)'이라는 詩에서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닦고자 했던 이색의 차생활을 엿볼 수 있다.

작은 병에 샘물을 길어 깨어진 쇠술에 노아차를 달이네
귀뿌리가 갑자기 밝아지고 코로는 향기를 맡네
별안간 눈에 가리운 편견이 없어지니 밖으로 보이는 데에 티끌이 없구나
혀로 맛본 후 목으로 내려가니 살과 뼈가 똑발라 비뚤어짐이 없도다
마음은 한 뼒기 좁은 발이지만 밝고 깨끗하니 생각에 그릇됨이 없네
어느 겨를에 천하스리는 일에 생각이 미치랴
군자는 마땅히 집안을 바르게 해야 하리.

“小瓶汲泉水 / 破鑊烹露芽 / 耳根頓清淨 /
鼻觀通紫霞 / 俄然眼翳消 / 外境無纖瑕 /
舌辨喉下之 / 肌膚正不頰 / 靈台方寸地 /
皎皎思無邪 / 何暇及天下 / 君子當正家”

차를 마시는 마음은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가

유학자이기에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잊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것의 바탕을 차에서 찾는다. 차를 마시면 귀로는 골짜기의 냇물 소리와 솔바람소리를 듣고, 코로는 아름다운 향기 맡으며, 혀로는 감로(甘露)의 맛을 보고 눈은 나쁜 것을 보지 않으니, 마음은 저절로 사악함이 가시고 맑아지는 것이다. 이렇듯 차를 마신다는 것은 몸에 수분을 섭취하는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누각아집도

김홍도 시명도

요즘 시대는 자신은 물론 내 주변을 돌이킬 수도 없을 만큼 바쁜 시대이다.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마음의 급급함은 곧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람을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즉 인생이 각박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삶은 생각 한조각의 차이다. 같은 시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어떤이들은 이런 바쁜 일상에 어떻게 한가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냐고 반문 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다. 이런 바쁜 일상일수록 차한잔으로 무미건조한 내 정신밭에 윤활유를 부어주는 것은 어떻게?

남과 비슷한 정도의 모습으로 살기위해 남의 잣대, 남의 틀에 맞추어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주체적인 행복의 주관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차한잔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다.

권신애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 책임연구원

세계유산, 동의보감(東醫寶鑑)



보감이란 무엇인가? 햇빛이 새어나오고 잠든 안개가 풀리듯이 살을 나누며, 갈피를 찢개어, 독자로 하여금 책장을 들추게 하면 요연히 거울처럼 광명함을 말함이었다.

보물 제1085호, 1085-2호, 2009년 7월 31일 바베이도스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전문의학서로서는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심사 선정에 있어서 “『동의보감』은 그 내용이 독특하고 귀중하며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중요한 유산으로 세계 의학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의보감』은 선조 30년(1597) 임금의 병과 건강을 돌보는 어의(御醫) 허준(許浚, 1546~1615)이 선조의 명을 받아 내의원(內醫院)에 편찬국을 두고 허준·양예수(楊禮壽)·이명원(李命源)·정작(鄭碯)·김응탁(金應鐸)·정예남(鄭禮男) 등이 한(漢)나라 때에 체계화된 한의학을 중심으로 동방의학의 총집성과 더불어 민족의학을 정립시키는 대역사(大役事)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년 후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중단되었고, 허준만이 자신의 일생 사업으로 추진하여 집념으로 저술에 임하였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증적 학구의 자세와 명민한 관찰력, 그리고 고전에 대한 해박한 학식을 토대로, 풍부한 임상경험을 살려 기본학리가 임상에 직결되기까지 일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의술의 구체화를 이루었다.

광해군 2년(1610) 8월 6일에 완성하니 임금이 말을 하사하고 속히 간행 하라고 지시했다. 광해군이 전교하기를, “양평군(陽平君) 허준은 일찍이 선조(先朝) 때 의방(醫方)을 찬집(撰集)하라는 명을 특별히 받들고 몇 년 동안 자

료를 수집하였는데, 심지어는 유배되어 옮겨 다니고 유리(流離)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여 이제 비로소 책으로 엮어 올렸다. 이어 생각건대, 선왕께서 찬집하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허준에게 숙마(熟馬) 1 필을 직접 주어 그 공에 보답하고, 이 방서(方書)를 내의원(內醫院)으로 하여금 국(局)을 설치해 속히 인출(印出)케 한 다음 중외에 널리 배포토록 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광해군 5년(1613)에 총25권 25책,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발행되었다. 허준은 선조 7년(1574) 의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내의원의 의관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모시고 의주까지 피난을 갔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공신으로 추대되었으나 중인신분으로는 지나치다는 여론 때문에 취소되었다.

『동의보감』은 그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16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한의학의 백과사전적인 책이며, 허준 선생은 이외에도 중국의 의학서적을 번역하는 데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동의보감』은 내과에 해당하는 『내경편(內經篇)』 4권, 외과에 관한 『외형편(外形篇)』 4권, 유행성병·급성병·부인과·소아과 등을 합한 『잡병편』 11권, 약제학·약물학에 관한 『탕액편(湯液篇)』 3권, 『침구편(鍼灸篇)』 1권과 이외에 목록 2권으로 되어 있고, 각 병마다 체제정연하게 처방을 풀이한 한의학 서적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의서라 하여 『동의보감』이라 이름하였으며, 영조 14년(1738) 2월 중국의 칙사가 원래의 예단(禮單)만 받고 따로 주는 것은 받지 않았는데, 다만 『동의보감』 및 청심환(淸心丸) 50환과 다리(鬚髮 = 가발의 일종) 두 묶음만 구하여 갖고, 정조 8년(1784)에도 칙사를 접대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동의보감』을 양남(兩南)에서 인쇄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서유문(徐有聞)의 『무오연행록』 제2권, 무오년(1798, 정조 22) 12월 7일~22일 기록에 “가게는 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을 고이 책으로 꾸며서 서너 질 없는 곳이 없으니, 저들이 귀히 여기는 바인가 싶더라.”라고 하여 중국에서 크게 인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박지원의 『구외이문(口外異聞)』에 보면 『동의보감』에 대해 “우리나라 서적으로서 중국에서 간행된 것이 극히 드물었고, 다만



『동의보감』25권이 성행(盛行)하였을 뿐이었는데 관본이 정묘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의술이 널리 퍼지지 못하고, 토산 약품이 옹지 못하였으므로 선조 대왕께서 태의(太醫) 허준(許浚)과 유의(儒醫) 정고옥(鄭古玉) 고옥은 정작의 호(號) 작(砮)과 의관(醫官) 양예수(楊禮壽)·김응택(金應澤)·이명원(李明源)·정예남(鄭禮男) 등에게 명령을 내려 국(局)을 차리고 이를 편찬할 제, 내부(內府)의 의방(醫方) 5백 권을 내어 고증의 자료로 삼아서 선조 병신(1596년)에 시작하여 광해군 3년 경술(1610년)에 이룩하였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좌한문(左翰文)에 의해 간행된 『동의보감』서문에 "허준은 봉(錡)·성(箴)·균(筠) 등 형제 세 사람이 모두 문장으로 날렸으며, 그의 누이 동생 경번(景燮, 난설헌)의 재명(才名)이 더욱 그의 오빠들보다 뛰어났다.

'동의(東醫) 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 나라가 동쪽에 있으므로 의원에서도 동(東)이라 일컫는 것이었다. 허준이 비록 궁벽한 외국에 태어났으나, 능히 아름다운 책을 지어 중국에 유행되었으니, 대체로 말이란 죽히 전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으로써 한계를 지을 것은 아니리라.

또 '보감(寶鑑)'이란 무엇을 이름일까. 햇빛이 새어나오고 잠든 안개가 풀리듯이 살을 나누

며, 갈피를 쪼개어, 독자로 하여금 책장을 들추게 하면 요연히 거울처럼 광명함을 말함이었다."라고 했다. 이 서문은 건륭(乾隆) 31년(1766)에 청나라 학자인 능어(凌魚)가 쓴 것이다. 좌한문은 능어가 총각 때부터 사귀 사람인데, 『동의보감』을 간행해서 널리 퍼뜨릴 생각을 품고서 돈을 3백여 민(緡, 꿩이)을 쓰면서도 조금도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천하의 보배는 천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법이니, 좌한문은 대단히 어진 사람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중국에서 간행된 『동의보감』은 오히려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 판매되기도 했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제59권, 「양엽기(盎葉記)」에는 『동국통감(東國通鑑)』, 『삼국사(三國史)』,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등 여러 가지 서적이 일본에 전해졌다고 적었는데, 이 중에 『동의보감(東醫寶鑑)』도 포함되었다. 이덕무는 이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좋은 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학집요(聖學輯要)』·『반계수록(磻溪隨錄)』·『동의보감』이니, 하나는 도학(道學), 하나는 경제(經濟),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방술로 모두 유자(儒者)가 할 만한 것이요, 도학은 진실로 사람됨의 근본이 되는 일이니 말할 것 없거니와, 요즘 세상에 오로지 사한(詞翰)만을 숭상하며 경제를 멸시하니, 의술(醫術)이야 그 누가 밝히려겠는가?"라고 하였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의궤(조선왕조의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에 이어 일곱 번째이며, 의학서로는 처음이다.

창성한 덕,
창덕궁

24
25

2010 December Vol. 221



‘창덕(昌德)’은 ‘성(盛)한 덕’이라는 뜻이다. ‘창(昌)’은 ‘밝다’, ‘선하다’, ‘창성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창덕궁은 태종(太宗)이 경복궁이 아닌 별도의 이궁(離宮)을 세우도록 명하여 태종 5년(1405)에 완성했다. 경복궁의 동쪽에 있어서 창경궁과 함께 동궐(東闕)이라 불렀고,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불탄 후 광해군 때 재건하여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까지 정궁 역할을 했다.

경복궁은 평지에 좌우 대칭의 건물배치를 했지만 창덕궁은 완만한 산자락에 건물을 배치하였다. 비원(秘苑)으로 알려진 창덕궁의 후원은 다양한 정자와 연못, 수목과 괴석이 어우러져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궁궐의 위엄을 보여 주면서도 아름다운 조형미가 궁궐 중 으뜸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창덕궁에서 예종, 연산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순조, 철종, 고종이 즉위했고, 조선 궁궐 가운데 임금들이 가장 오래 거처했던 궁궐이다. 궁이 완성되고 궁의 이름은 창덕궁으로 정했으나 아직 궁궐로서의 여러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태종 연간에 건물이 계속 세워졌다.

세조(世祖)가 즉위하고서는 정전인 인정전(仁政殿)을 다시 짓고 궁내 각 건물의 명칭을 고쳤는데, 이 때 고쳐진 전각들의 이름이 대체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 조선 전기에는 임금들이 경복궁에서 정사를 보았으므로 창덕궁은 크게 이용되지 않은 듯하다. 성종(成宗)이 즉위하고부터 왕이 창덕궁에 머물면서 정사를 보는 일이 많아졌다. 연산군(燕山君)은 주로 이 궁에서 정사를 보면서 실정(失政)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왕들이 이 궁의 정전에서 외국 사절을 접견하는 일도 점점 잦아졌다.

임진왜란으로 창덕궁과 경복궁·창경궁 등 조선의 3대 궁궐이 모두 불탔는데, 창덕궁이 가장 먼저 1609(광해군 1)년에 중건되었다. 곧이어 창경궁도 복구되었지만 경복궁은 1867(고종4)년에 가서야 중건되었다. 따라서 창덕궁은 임진왜란 뒤 중건되





면서부터 조선 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 하여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치르는 역사의 주무대가 되었다.

궁궐의 주요 건축물은 정치적 이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敦化門)은 현존 궁궐 대문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돈화(敦化)'는 '교화를 돈독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중용(中庸)』30장에서 “작은 덕은 냇물의 흐름이요, 큰 덕은 교화를 돈독하게 하니 [敦化], 이는 천지가 위대해지는 것이다.”라고 한 뜻을 취한 것이다.

정무 공간인 인정전(仁政殿)은 조정의 각종 의식과 외국 사신의 접견 장소로 사용했으며,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릴 때에도 이 곳을 이용했다. 또한 왕세자나 세자빈을 정했을 때나 국가의 커다란 경사가 있을 때에도 왕이 인정전으로 나아가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다. '인정(仁政)'은 '어진 정치'라는 뜻으로 『맹자(孟子)』에서 강조하는 정치사상이다.

규장각(奎章閣)은 내각이라고도 하며 왕실 도서관과 같은 곳이다. 정조(正祖)가 설치하여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 서화, 고명(顧命), 유

교(遺敎), 선보(璿譜: 王室世譜), 보감(寶鑑) 등을 보관·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정조는 1776년 즉위하자 곧 창덕궁의 북원(北苑), 곧 지금의 주합루(宙舍樓) 자리에 새로 집을 짓고 규장각이라고 이름했다.

규장각은 승정원·홍문관·예문관의 기능을 흡수했으며, 과거 시험과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도 함께 주관하였다. 초계문신은 글 잘하는 신하들을 대상으로 매월 시험을 치른 후 상벌을 내려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제도였다. 또 강화사고(江華史庫) 별고를 신축하여 강도외각(江都外閣)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훗날 병인양요(1866년) 때 프랑스에게 약탈당한 외규장각(外奎章閣)이다.

정조가 승하한 후 규장각은 기능을 점점 잃었다. 1868(고종 5)년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주합루 자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고 소장 도서들도 이문원·경복궁의 집옥재(集玉齋)·시강원(侍講院) 등에 분산되었다.

국권을 빼앗기면서 이 도서는 1911년 조선 총독부 취조국(取調局)으로 넘어갔고, 그 후 주무 관청이 몇 차례 바뀌어 경성제국 대학으로 이관되었다가, 광복 후 서울대학교에 남았다. 그 도서를 소장·관리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다. '규장(奎章)'이란 '임금의 시문이나 글씨'라는 뜻이다. '규(奎)'는 천체(天體)의 대표적인 별자리인 28수(宿) 중의 하나로 문운(文運)을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문장(文章)'을 상징하는 글자로 쓰이게 되었으며 특히 임금의 글이나 글씨를 미화하는 뜻을 가지게 되



었다. 선정전(宣政殿)은 인정전의 동편에 있는 임금의 편전. 원래 이 곳의 이름은 아침마다 임금에게 정무를 아뢰던 청사(廳舍)라는 뜻의 조계청(朝啓廳)이었는데, 1461(세조 7)년 12월에 선정전(宣政殿)이라고 고쳐 불렀다.

편전에서는 왕이 신하들과 나라 일을 의논하거나 왕비와 함께 크고 작은 행사를 치렀다. 이 곳은 임금의 집무실이지만 때때로 왕비가 이용하기도 했다.

1471(성종 2)년 가을에 왕비가 이 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고, 1477(성종 8)년과 1493(성종 24)년 봄에는 친잠례(親蠶禮)를 행하였다.

선정전은 남아 있는 창덕궁의 건축물 중 유일하게 청기와 지붕인데, 조선 초기 건축 재료의 모습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건축사 연구에 중

요한 문화재이다. '선정(宣政)은 정치와 가르침(政教)을 널리 펼친다(宣揚)는 뜻이다. 이는 곧 어진 정치를 베푼다는 말이다. 대조전(大造殿)은 왕비가 거처하는 정당(正堂)으로 중궁전(中宮殿)이라고도 한다. 대조전은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無梁閣) 지붕인데, 대조전의 집채가 대지를 상징하는 곤전(坤殿)인 까닭에 하늘 높이 용마루가 솟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건물에서 성종(1494년), 인조(1649년), 효종(1659년), 철종(1863년), 순종(1926년)이 승하하였다.

지금의 건물은 1917년에 화재를 당하여 1920년에 경복궁에 있던 임금의 침전인 강녕전(康寧殿)을 헐어다 희정당(熙政堂)을 지을 때 왕비의 침전이던 교태전(交泰殿)도 함께 옮겨다 대조전을 지었다. 『궁궐지』에 의하면 당시 대조전 현판 글씨는 순조의 어필이었다고 한다.

'대조(大造)'는 '큰 공업(功業)을 이룬다'는 뜻이다. '대조'는 흔히 '지혜롭고 현명한 왕자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기도 하는데 이 곳에서 왕비가 거주했기 때문이다. 낙선재(樂善



는 기둥 위에 공포를 두지 않은 민도리집이다. ‘연경(演慶)은 ‘경사(慶事)가 널리 퍼진다’는 뜻이다.

창덕궁 후원의 북쪽 깊숙한 곳이 옥류천(玉流川)이 흐른다. 1636(인조 14)년 가을에 바위를 뚫어 샘물을 끌어들여 바위 곁을 빙 돌아서 정자 앞에 이르러 폭포처럼 떨어지게 만들었다. 바위에 ‘옥류천(玉流川)이라고 새긴 세 글자는 인조의 친필이고, 그 글씨 바로 위에는 숙종이 지은 시가 새겨져 있다. ‘옥류천(玉流川)은 ‘옥같이 맑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이다. <참조자료 | 문화재청 소식지, 조선왕조실록, 궁궐지>

숙종 임금의 지은 옥류천 시

飛流三百尺 삼백 척 높이에서 날아 흐르니

遙落九天來 저 멀리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

看是白虹起 바라볼 땐 흰 무지개 일어나더니,

轟成萬壑雷 갑자기 온 골짜기 우레 소리 이루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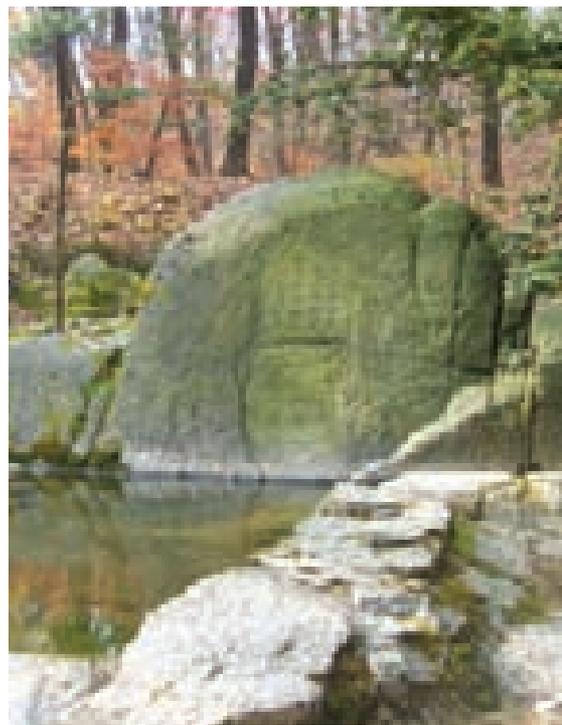
글 | 문수진 신구대 명예교수, 한국사

齋), 석복헌, 수강재를 통틀어 낙선재라고 한다. 낙선재는 헌종의 서재 겸 사랑방이기도 하다. 1884년 갑신정변 때는 고종이 이 곳을 집무소로 사용했다.

순종은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1912년 6월 14일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거주하였다. 1963년 일본에서 환국한 영친왕 이은(李垕)도 낙선재에서 생애를 마쳤고, 이은의 부인 이방자(李芳子) 여사가 여기에서 살았다. ‘낙선(樂善)’은 ‘선을 즐긴다’는 의미이다.

연경당(演慶堂)은 순조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경축 의식을 거행할 곳으로 건축했으며 ‘연경’이라는 이름도 이 때에 지었다.

연경당은 120칸 규모인데, 다른 건물들이 단청과 장식을 화려하게 한 것에 비하여 이 집은 단청을 하지 않았고 구조도 일부를 제외하고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80년대 책 표지화 중심에 선 민중 판화가들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읽으신 분들은
책의 표지화가 꽤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다.

작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한국출판사상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함께
200쇄를 넘는 문학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분단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태백산맥>은
1983년 9월 <현대문학>에 제 1부가 연재되면서
긴긴 장정의 첫 포문을 열었고 단행본으로
처음 묶여 나온 것은 1986년이다.

한길사에서 1권 제1판 제1쇄가 나온 이래
1989년 전10권으로 완간됐고, 1995년 해냄으로
출판사가 바뀌면서 1997년 3월 한국문학 및
출판사상 다권본 최초로 100쇄 출간 기록을 세웠다.

그 후 12년이 지난 2009년 3월 200쇄를 돌파하며
스테디셀러 반열에 올랐다.

<태백산맥>은 한국문단의 문제작으로
흔히 일컬어진다. 산속의 원귀로 머물렀던
빨치산을 문학으로 걸맞게 보듬었다는

문학내적 평가뿐만 아니라, 지금은 무협이
처리 되었지만 94년 그 작품을 둘러싼 사상시비와
고발 등의 문학 외적 사건들도 녹록찮게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 녹록찮은 목록 중에서 판화로 된
표지화도 빠지지 않는다.

순전히 이 소설을 위해 제작된 표지화는,
제목은 소설제목과 같은 <태백산맥>으로
판화가 이철수의 작품이다.

표지화의 판화는 표지안쪽에서 시작하여
책의 앞표지를 지나 뒤쪽 표지까지 걸쳐 있는데
한반도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중 앞표지에는 산맥의 높다란 봉우리 하나가
절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판화가 책표지화로 등장한 것은
오래전부터이다.

오늘날 현대미술로서의 판화는

판화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독자적인 작품이지만 과거에는 삽화나 표지화,
카드를 인쇄하기 위한 기술, 여타의 생활에 필요한
공예로서의 인쇄술이었다.

우리나라의 목판화도 주로 조선시대의
책의 삽화로 제작되어 남아있고,
그것은 거의 1800년대말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의 <부모은중경> <이륜행실도>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의 불교 및
유교의 교육용 서책에서 볼 수 있다.

한국근대 목판화의 시작은 개항기인 1883년 발행된
<한성순보> 창간호에 실린 과학기사의 삽화인
<지구전도>와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번역소설인
<턴로역정>의 삽화라 할 수 있다.

구한말을 지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1920년대말까지의 목판화는 근대에 대한
시대성과 자각성을 보여주는 목판화로

작가의 작업의도가 우선시 되면서 당시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인 개화와 항일과 그 궤를 같이하고,
또한 대량복제성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보다 넓게 소통하려는 전략적 측면이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다.

이처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편화 된 목판삽화는
전통적 목판화에서 완연하게 이탈하면서
개화기 1920년대 목판화의 조형적 새로움으로
자리했다.

1930년대 이후 해방에 이르는 기간의 목판화는
대부분의 책의 장정을 위한 표지화로 제작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판화가 책의 표지화로 등장했다.
시집, 소설 등 문학류 단행본뿐만 아니라
양정중학교 교지 〈양정〉, 〈가톨릭청년〉, 〈인문평론〉,
〈신천지〉 등의 잡지 표지화로 영역을 넓혀갔다.

그러나 한국 출판미술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 목판화의 역사에서 보자면 일제 강점기나
해방 공간보다는 더 어두운 암흑기는 오히려
5-60년대라 할 수 있다.

해방직후부터 좌익계열 작가들의 월북과
6.25 이후 남한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순수미술로서의
현대 목판화의 등장이 상당기간 출판미술
목판화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5-60년대 기간 중 출판미술 목판화는
일제강점기보다 더 작은 수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것은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문적인 순수미술
판화작가들이 목판화보다는 석판화나 동판화에
치중한 것과, 옵셋 인쇄기나 필름제판기술의 발달로
사진을 책표지에 많이 활용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때마침 서구에서 붓물 터지듯 수입되는
현대미술의 여러 경향들의 유행으로 인해 목판화는
현대적인 유행에서 뒤쳐진 낡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인식된 것도 그런 이유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출판미술의 활황으로부터
전쟁을 거치면서 축소되기는 했지만,

목판화의 끊어지지 않는 실핏줄 같은 맥락은
이후 70년대부터 본격적인 한국현대목판화의
중흥기를 준비하는 하나의 고리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일제의 착취와 사상의 탄압, 6.25전쟁으로 인한
궁핍하고 남루한 가난 이후 60년대부터는
군부독재에 의한 매카시즘 속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았듯이, 미술문화와 목판화도
그렇게 끊어질듯이 힘들게 그 시기를 버티며
7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7,80년대라고 쉬운 세월이었는데,
그런 숨쉬기 힘든 자유의 억압 속에서 목판화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니
민중미술의 탄생이었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 Louis David
1748-1825)는 19세기 초 프랑스 화단에
고전주의 미술의 대표자로 굳건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나폴레옹에게 중용되어 예술적, 정치적으로
미술계 최대의 권력자가 되어 화단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 혁명을 지지해서
권좌에 오르고 이후 로베스 피에르의 실각과 함께
투옥 되었지만 나폴레옹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화려하게 권좌에 돌아왔다.

나폴레옹 실각 후, 추방되어 1816년 브뤼셀로
망명하였고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의 작품 중 〈호라티우스의 맹세〉는 나라가
개인 보다 우선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작품 〈마라의 죽음〉은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였던
마라의 죽음을 그린 것으로, 주인공 마라는
공포정치를 실시했던 자코뱅파의 일원이었다.
마라와 같은 신념을 가졌던 다비드는 그를
정치적 이상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로 묘사하였다.

〈알프스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을 찬양할 목적으로 그려졌다. 사나운 바람에 날리는 말의 갈기와 망토가 나폴레옹을 영웅처럼 느껴지게 그렸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게 그려진 작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미술을 정치화하여 미술 본연의 가치를 왜곡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년대를 풍미했던 민중미술에서 엿볼 수 있다. 1980년대를 휩쓸었던 민중미술이 성취한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창백한 밀납처럼 굳어버린 미술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민중미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술은 눈물겨운 고난의 길을 걸었다. 일제강점기 아래서 상상력을 박탈당했고 전쟁과 분단의 지배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상실당해야 했던 동토의 왕국이었다. 여기에 군벌을 지퍼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서 한국미술의 지형을 바꾸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끔 한 동력이 바로 민중미술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미술을 정치화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너무도 거칠어 예술성이 저급하다는 주장까지 나온 채 민중미술은 지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한 시대의 유행처럼 여겨졌다. 80년대가 저물고 90년대가 지나면서 목판화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군부정권이 퇴진하며 민주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80년대 내내 군부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며 저항했던 민중미술 목판화가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민중미술에 참여했던 상당수 미술가들이 이념과 양식을 철회 또는 전환하여 한때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되었던 목판화가

순수목판화로 미술과 문학, 인문학, 아동문학과 장르를 넘나들며 출판미술로 돌아와 앉은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민중미술시기 책 출판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열매를 맺었는데, 판화가 오윤에 의한 목판화와 출판미술의 만남이었다. 본래 조각을 전공한 오윤이었지만, 목판화를 통하여 한국현대미술 전반에 대한 반성과 한국미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전개 되어온 출판미술로서의 목판화 뿐 아니라 미술이 어떻게 동시대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미술전반에 주체적 반성과 대안으로서의 미학적 실천이었다. 따라서 오윤의 출현은 한국현대판화 뿐 아니라 현대미술의 전반의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또한 오윤의 영향을 받은 젊은 판화가들이 다수 등장 했는데, 이들 또한 전시장미술로서의 목판화, 현장미술로서의 전단이나 포스터, 그리고 출판미술을 통하여 목판화로 동시대의 현실에 참여했다. 당시의 군부독재와 남북통일, 반미 등의 현실적 이념을 앞세우며 출판미술로서의 목판화를 활성화 했다. 여러 문학이나 사회과학출판사들이 표지화로 목판화를 선호하면서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지면이 제공되었다. 창작과 비평, 한길사, 풀빛, 청사 외 여타의 출판사에서 이철수, 홍성담, 홍선웅 등의 목판화를 표지화에 사용하였다. 표지에 사용한 목판화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단순한 표지삽화에 지나지 않았던 목판화가 이 다수의 출판물을 통해 과급되는 소통의 힘은 엄청난 것이었다. 한꺼번에 몇 천부씩 제작되어 전국의 서점에서 배포되는 이 비판적 목판화는 책의 판매에도 이바지했지만, 서점에서 책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의

뇌리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감성에 기반하는 시각적 이미지가 시간성을 요하는 문학의 인식적 수용방식에 앞서서 독자들의 뇌리에 강력하게 흡입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책 출판에 있어 목판 표지화 대유행의 전기를 마련한 오윤, 이철수, 홍선웅, 홍성담 등의 민중판화가들의 활동은 독자들에게 강하고 인상적으로 각인 된 것이다.

조각가이자 민중판화가였던 오윤(1946~1986)은 1946년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갯마을〉의 작가인 소설가 오영수(吳永壽)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였고, 40세 짧은 나이로 요절했다.

‘현실’의 동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969년 이전부터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민화?무속화?불화?탈춤?굿 등 한국 전통의 민중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민족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에 전념하였다.

졸업 후에는 2년 동안 경주와 서울에서 벽돌 공장을 경영하면서 몇 점의 테라코타 소품을 제작하고,

1974년에는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구의동지점 내외벽의 테라코타 부조를 제작하였다.

이후 서울에 정착해 출판사 〈청년사〉에서 표지화 및 삽화?엽서 등의 목판화에 열중해

〈한국의 민중극〉, 〈독립운동사 연구〉, 〈박노해 시집 노동의 새벽〉,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등의 책 표지화를 그렸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목판화에 전념해 창작 출판 〈강쟁이 다리쟁이〉, 〈도라지꽃〉 등의 포스터와 〈민족의 노래, 통일의 노래〉

출판기념회장 걸개그림을 제작하였고, 현실과 발언 창립전(1980), 새로운 구상화가

11인전(1981), 시대정신전(1984~1985), 삶의 미술전(1984), 40대 22인전(1986) 등의 전시회를 통해 한국 민중판화?민중예술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86년 민족미술협의회에서 첫 ‘오윤 판화전’을 기획해 큰 호응을 얻었고, 이어 부산에서

판화전을 개최하던 중 간경화로 사망하였다.

인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쾌하게 표현함으로써 민중판화를

‘민족미술 또는 민족문화라는 넓은 영역으로 이끌어 간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윤은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민족 형식을 통해 계승 발전시킨 1980년대 현실주의 미술의

대표 작가이다. 그는 짧은 생애 동안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판화를

주매체로 하여 독자적인 조형언어로 기록했다.

리얼리즘적 시각으로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영하면서도 표현방식으로는 전통적,

민중적 도상을 차용하였다. 또 이를 대중매체와 원활하게 결합할 수 있는 판화를 통해 민중들에게

다가갔다. 당시 판화는 흑백 대비의 강렬함으로 당시 우리 사회의 독특한 변혁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매체였다. 목판에 갈질의 새기고 파고 찍고 하는 힘과 몸이 움직이는 정직성, 갈맞의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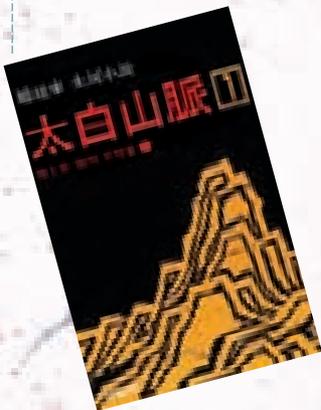
이 풍기는 에리함과 생명력은 본래 조각을 전공한 작가에게 적합한 매체로 느껴졌을 것이다.

이철수(1954~)는 미술 공부를 독학으로 했다. 학연이 없다. 사실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문학에서는 세상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미술은 없을까,

70년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 미술운동권으로 편입이 되고, 미술운동이 시작되었다. 1981년 첫 개인전을 통해 목판화가 이철수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폭압적인 사회에 보내는 저항 언어들, 서정적이면서도 격렬한 선묘 관화, 처음으로 본격화된 출판미술 운동 등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관심은 줄곧 자기 성찰과 생명의 본질이었다. 평범한 일상사를 관조하면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찾고 다채로운 자연을 소개로 그 안에 깃든 인간의 면모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간결하고 단아한 그림과 촌철살인의 화제들, 시정 넘치는 짧은 글이 어우러져 현대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의 관화의 특징이다.
 이철수는 1980년대에 신들린 듯 목판을 판던 사람이다. 아마 이철수만큼 작품수가 많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관화 모음집 <새벽이 온다, 북을 쳐라 (이론과 실천)>을 펴내고, 이어 <산빛나무 꽃피었는데 (학교재)>와 <마른풀의 노래 (학교재)> 등 다수의 관화집을 남겼다.
 1981년 양성우 시집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1982년 <한국노동운동사>를 시작으로 조정래의 <태백산맥>, 권정생의 <몽실언니> 등 수많은 책의 목판 표지화는 민중미술의 입장에서

시대현실을 반영하며 진행되었다.
 80년대 내내 민중미술권의 대표적 출판미술 목판화가였던 이철수는 90년대 들어서며 선불교적 내용으로 변신하며 그의 독자층을 상당부분 넓혔다. 민중미술의 굵고도 시커먼 검은테 그림에서 벗어나서, 연필처럼 얇고도 날렵하되 넓은 여백이 더 두드러지는 조형방식으로 선회하며 당시 유행하던 인테리어 <Zen>과 함께 비움의 미학을 구현한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작가의 명성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일으켰다. 이철수의 관화는 가는 선과 큰 여백, 그리고 최소한의 축소된 도상에서 무언가 긴 여운을 남긴다. 그의 관화는 가는 선에 의한 극도의 단순 명쾌한 표현과 수 없는 은유와 은유의 연속, 그리고 때로는 점 하나 선 하나로 축약된 '최소한의 미학'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한정대의 무상(無想)의 세계를 향한 것인지도 모른다.
 홍선웅(1952)은 민중운동, 통일운동, 민중의 삶과 역사 등을 형상화하면서 80년대 목판화운동을 이끌었다. 80년대 중반 미림여고 교사직을 지내다가 '민중교육' 지사건으로 해직된 후 민족미술협의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한국민족예술인연합 결성에 큰 힘을 보탰다. 역동적 시기를 통과하면서 홍선웅은 목판화와 먹의 맛을 고판화와 옛그림에서 찾았다.



관각기행의 글과 먹판화들을 모아서
(홍선웅 관각기행)이란 제목으로 단행본을
냈으며, 고광현의 시집(산중산중교실에서),
백기완의 수상집(자주고름 입에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등 책의 표지화도 그렸다.
그는 먹선묘의 맛을 한껏 살릴 수 있는
조선다종이와 천연염색의 무명천의 사용을
고집한다. 판화를 찍고 나면 판을 버리는
현대적 개념의 목판화 관행을 반성하고
판이 잘 뭉개지지 않는 은행나무만을 사용하였다.
민중미술운동에서 시작하여 전통 목판화와
검재의 진경산수의 재해석에까지 도전한 홍선웅은
먹으로 찍는 참 목판화가를 찾기 힘든
오늘날의 실정에서 이제 우리시대 판화가가
가야할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980년 광주항쟁의 중심에 있었던 작가
홍성담(1955~)은 80년대 민중미술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며 일관되게 민중해방을 위해
헌신하였고 시민판화운동을 주도하였다.
홍성담은 초기작에서 70년대의 시민성과
현대성이라는 미적 범주에 대한 시대 비판적
관점을 보여주었다.
홍성담의 출판미술 출세작은 84년 현암사에서
간행한 황석영의 <장길산>의 표지화인
'장산꽃매'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중기의 목판민화인
'호응도(虎鷹圖)'에 등장하는 매를 모델로 하여



이를 현대적이고 다이나믹 한 싸움의 모습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후 <오월시판화집, 1986>을 거쳐 <문학운동론,
1986>, 시인 김정환의 시와 홍성담의 목판화로
구성한 <해방 판화시, 1986>, 북한의 장편소설
<민중의 바다, 1988>, 홍성담 자신의 목판화집
<해방의 칼꽃, 1990>, 미술평론가 최열의 미술 이론서
<민중미술의 이론과 실천, 1991>, 광부 성희직의
시집 <광부의 하늘, 1991>, 이현주의 <예수와 만난
사람들>등의 많은 책의 표지 화를 목판화로 그렸다.
홍성담에게 광주의 5월은 새로운 전망을
알려주는 하나의 변혁적 체험을 의미한다.

80년 대의 현실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진보적
지식인 예술가의 전형적인 상을 보여준 홍성담.
그의 작품들은 80년대 민중미술운동 이념이
추구한바, 그 정치성의 미학을 가장 극명하고도
리얼리즘적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판화로 민중의 아픔을 그려내 민중의 어머니로
일컫는 독일 판화가 케테 콜비츠(1867~ 1945)
그녀의 작품은 자유와 정의를 구가하고 민초들의
아픔에 그 테마를 두고 있다.

80년대 우리나라의 민중판화 중심에 섰던 이들도
민중의 삶을 대변하며 시대현실의
충실한 소통자로서 역할과 그 진정성을
다했으리라 생각한다.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예술이란 세상을 재정리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며
평범한 것을 다른 관점으로 놓아 새롭게 만드는 개념이다.

우리는 예술을 고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돈에 얽매인 예술가는 경멸을 받는다.
그러나 예술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술과 돈



문화와 경제는 같이 가는 것이다. 문화는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종교·예술·과학 등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 예술과 돈의 관계를 들여다 본다.

예술이란 세상을 재정리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며, 평범한 것을 다른 관점으로 놓아 새롭게 만드는 개념이다.

우리는 예술을 고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돈에 얽매인 예술가는 경멸을 받는다. 그러나 예술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술가들에게 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돈과 예술은 떨어져선 못한다. 예술은 돈을 따른다. 예술은 돈을 먹고산다. 돈과 예술은 관계가 매우 깊다.

예술은 어느 시대나 돈을 매개로 거래되었다. 예술과 돈의 결합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돈은 예술가들을 타락시킬 수 있고, 그들의 창조성을 자극(고무)할 수도 있다.

우리의 주위에는 부자가 된 화가, 소설가, 음악가들이 있다.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품에 대해 최고의 값을 받으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돈을 원한다.

이는 곧 자신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삶의 게임에서 승자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돈은 작품의 수준을 재는 바로미터이다.

피카소는 '미술은 돈' 이라고 공언했다. 피카소는 잇속에 밝았다. 그는 그의 소책자에 다음의 글을 남겼다. "예술은 비즈니스이다. 예술은 무한한 돈의 흐름이다. 그걸 이는 건 내가 부자이기 때문이다.

돈으로서의 예술은 결코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누구나

미술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왜 참새의 노래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가?

루벤스도 돈을 많이 벌었다. 루벤스의 호화저택은 암스테르담 관광명소의 하나이다. 그는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요령이 있었다.

휘하에 작업팀을 두고 그림공장을 운영하면서 낙관만 찍었다. 그는 말했다.

“그들은 내게 금(金)으로 된 족쇄를 채웠다.” 그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고백한 것이다.

대중은 경제적 성공을 거둔 예술가들을 돈에 팔렸다고 말한다. 돈 때문에 작업한다고 보는 것이다. 금전적 잠재력이 모험적 사업의 자극제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순수 예술작품 중에도 금전적 동기에서 생겨난 것들이 많다.

르네상스 시대의 뛰어난 그림들 대부분은 부유한 후원자들이 제공한 돈으로 그려진 것들이다.

306년 엘비라 공의회(公議會)는 예술의 자유에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신을 그릴 수 없고 신의 아들인 예수를 그릴 수 없다는 교리를 앞세워 공의회에서 모든 교회건물에 그림을 금지시켰다.

일거리를 잃은 화가들은 주교와 사제들이 호화로운 관복을 입고 옷으로 돈이 몰리자 의상디자이너가 되어 생계를 이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가 “예수가 신이었는데,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이 화가들에게는 은총이 되었다. 아리우스파의 의문에 대해 교회는 “예수가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삼위일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는 사람이면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성화(聖畵)가 탄생하였고 화가들의 밥벌이가 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초기의 화가들은 풍족하지 못했다. 미켈란젤로는 “돈은 내가 이루어낸 업적의 동인(動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에 돈을 썼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없다.

그는 평생 가족의 뒷바라지로 힘든 삶을 살았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빌붙어 사는 무능력자들로 미켈란젤로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지금의 교황청 보물 피에타상(像) 제작비로 미켈란젤로는 150두카토(=2,250만원)를 받았는데 상당한 고수입이다.

당시 집세를 뺀 1년 도시생활비가 20~25두카토였고,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관(차관급) 마키아벨





대중은 경제적 성공을 거둔 예술가들을 돈에 팔렸다고 말한다. 돈 때문에 작업한다고 보는 것이다. 금전적 잠재력이 모험적 사업의 자극제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순수 예술작품 중에도 금전적 동기에서 생겨난 것들이 많다. 르네상스 시대의 뛰어난 그림들 대부분은 부유한 후원자들이 제공한 돈으로 그려진 것들이다.

리의 연봉이 110두카토였다. 1781년 모차르트가 '클라비아' 연주료 50두카토(=750만원)를 받았다. 1787년 빈의 궁정 오케스트라 수석의 연봉이 400두카토(=6,000만원)였다. (1두카토=베네치아의 화페로 순금 3.5g).

반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나치게 돈을 밝혔다. 천재적 두뇌를 돈을 모으는 데 이용하였다. 그는 적의 함선을 침몰시키는 방법을 고안한 뒤, 최후까지 흥정을 벌여 전리품의 절반을 챙길 만큼 모질었다.

그리고 그는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방언과 약어로 작업노트를 기록하였고, 기술보안을 위해 평균 이하의 조수들을 채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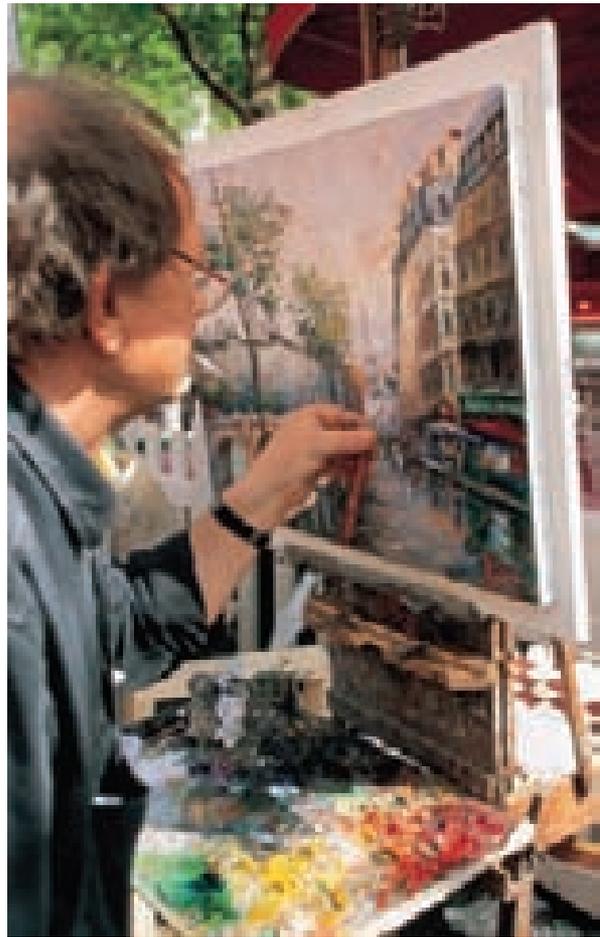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불우한 화가는 모네였다. 그의 가난은 전설적이다. 돈을 빌리기 위해 친구들에게 보낸 구구절절한 편지들은 그의 가난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네, 모네, 고갱, 르누아르, 세잔, 드가, 피사로 등의 인상파 화가들이 기성 화단에도 전장을 던진 악전고투의 30년 전쟁이 끝나고 모네도 돈방



그는<아테네의 타이먼>에서 돈을 향해 외쳤다. “국왕의 살해자여, 부자간을 이간시키는 자여, 순결한 결혼의 잡자리를 더럽히는 자여, 군신(軍神)과 같이 용감한 자여, 젊고 사랑스럽고 우아한 구애자여, 어떠한 상극도 화해시키고 입 맞추게 하는 위대한 신이여, 너는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

너의 힘으로 인간들을 서로 싸우게 하여 세계가 짐승의 제국이 되게 하라!”



석에 앉기 시작했다.

19세기 전반 유럽 미술의 주류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였다. 풍경과 인물들을 정밀하게 묘사했던 과거의 그림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는 인상파의 그림이 물감범벅으로 보였다.

1874년 제1회 인상파 전시회는 비평가들의 야유와 멸시, 일반인들의 무관심속에서 실패로 끝났다. 1880년대에 들어 세평(世評)이 호전되었고, 지금은 인상파 전시회에 관람객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림도 가장 많이 팔린다.

문학도 결국은 돈이다. 르네상스 이후부터 공개적으로 돈에 관해 말했다. 문학은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원고는 확실히 돈이다. 문학은 이야기 산업

이다. 죽을 때까지 가난뱅이 신세를 면하지 못했던 도스토예프스키는 글쓰기를 돈으로 바꾸어 계산했다. 그에게 가난은 창작의 원동력이었다. 돈의 부족이 그의 재능을 일깨우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나는 가난한 작가입니다. 내 작품을 원하는 사람은 나를 먼저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극작가 하워드 새클러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권위자로 희곡<햄릿>이 돈의 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햄릿>의 창작동기는 이 연극이 수지맞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일단의 사업가들의 전망이었으며, 셰익스피어가 사업에 합류한 것은 당시 그에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 하는 위대한 신이여, 너는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

너의 힘으로 인간들을 서로 싸우게 하여 세계가 짐승의 제국이 되게 하라!

대문호 괴테는 평생 동안 매우 풍족하게 살았는데도 지독한 구두쇠였다. 하인들에게 빵을 저울에 달아 줄 정도였다.

그는 “사람은 재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삶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 법, 풍족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독하게 돈을 모아 혼자 풍요를 누렸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66년생)이 2007년 매일 10억원씩, 총 3,670억원(\$3억3천만)의 수입을 올렸다. 롤링의 재산은 5억6천만파운드(1조2,110억원)로 추산된다.

수년 전에 이미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산보다 많아졌다. 롤링은 2007년 출간된 7편을 끝으로 해리포터 이야기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인세와 영화홍행의 수입으로 재산은 계속 늘고 있다.

총 7편으로 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세계에서 3억 7,500만권이 팔렸다. 책을 토대로 제작된 5편의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거둬들인 수익만 벌써 22억 파운드(4조7,573억원)에 이른다.

2009년 개봉된 6번째 영화가 5억파운드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7번째 영화의 수익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어 수입과 재산순위에서 롤링의 고공행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학 교수



극장의 주주이고 동시에 배우이며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는 돈에 대해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돈은 창부(娼婦)이며 인간과 인간의 중개자이다. 돈은 눈에 보이는 신이다. 돈은 모든 자연적 속성들을 도착(倒錯) 및 전도(顛倒)시키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 돈의 권능이다. 돈은 자연적인 것을 비자연적인 것으로 바꾸는 독재자”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는〈아테네의 타이먼〉에서 돈을 향해 외쳤다. “국왕의 살해자여, 부자간을 이간시키는 자여, 순결한 결혼의 잠자리를 더럽히는 자여, 군신(軍神)과 같이 용감한 자여, 젊고 사랑스럽고 우아한 구애자여, 어떠한 상극도 화해시키고 입 맞추



도시 컬러디자인 시대

풍요한 도시문화는
부유한 도시를 만든다
도시에 컬러를 입히다



그동안 문화는 일반대중과 격리된 특별한 사람들의 분야로 인식되어 소외되어왔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문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문화의 속성상 풍요한 문화가 사람들의 정신을 풍요하게 할 뿐 아니라 이는 바로 경제적 풍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학자들은 21세기를 'Soft Power', 'Spiritual Age', 'Dream Society' 시대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의 시대' '디자인의 시대' 라고 일컫는다. 문화의 제1요건으로는 "인간이 더욱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가치 창출" 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문화' 라면 오래 전통문화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문화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가치의 전파 뿐 아니라 미래의 풍요한 역사를 위해 새롭게 창출하여 만들어 가꾸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창의성이 가득한 새로운 문화가 풍요해질



3

문화란 사람의 삶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또한 사람들은 기이한 이국적 문화를 체험할 때 자유로운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즐긴다.

때 거주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미래로 이어지는 감성적 문화를 습득하게 되어 창의인재를 자연스럽게 배양하는 기반이 된다. 창의인재 배양이야말로 바로 미래의 국력을 풍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문화 창조 과정에서 다양한 외래문화를 받아들이고, 상호교류하고 혼합할 때 더욱 빛이 난다.

일반 생각과 달리 문화의 의미는 매우 간단하다. 인간은 꾸미고 장식하고 놀이를 좋아하는 본능을 지닌다. 문화의 본질이 사람의 본능을 의미한다면 문화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장식하거나 기분 좋게 음악과 춤을 즐기는 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린 후에는 어김없이 문화로부터 정신적 풍요성 충족시키려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적 욕심에 의해 문화는 형이상학적이며 의미심장한 초월적으로 변질되어 왔고,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은 문화가 어렵다고 불평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는 서구의 역사적 관습, 미술관에 걸려있는 애매모호한 그림이나 거대한 음악당의 오케스트라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체험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문화인데, 우리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서구 문화를 이해 못한다는



4

것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지적 부적격자로 생각하기도 한다.

문화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신적 필요함을 제공하는 즐거운 것이며 편안하고 기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한다면, 사람이 단순히 즐기며 기쁘다는 자체만도 문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대중문화가 부흥하는 것도 - 도시생활의 피곤한 삶을 치유하는 자양분으로서 -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즐거운 매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문화란 동시대의 삶의 철학을 제공하는 순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체험못한 미래의 세대에게는 이해 못할 어려운 문화가 될 것이다.

문화란 사람의 삶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또한 사람들은 기이한 이국적 문화를 체험할 때 자유로운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즐긴다.

이러한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즐기는 문화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관광산업은 영토자체를 상품화하는 '경험상품'으로 문화는 방문국가 및 도시의 인상을 좌우하여 사람들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최근 각 국가마다, 도시마다 차별화된 매력적 문화를 가꾸어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국가간 방문이 쉬워지면서 관광활성화,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자의 유치에 대한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 투자자 유치의 경우 그 가족들이 즐겨하는 도시를 찾게 마련이어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도시문화 창출은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명품도시는 각기 다양한 비전을 통해 고유의 문화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그 이미지를 펴는 세계적 문화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바람직한 도시의 목표는 바로 - 누구나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오래 머물고 싶은, 가장 살고 싶은 - 행복한 도시로 창출하는 데 있다. 이제 도시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유통되는 감성을 펴는 상품으로서 도시의 문화자산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상품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즉, "도시문화경쟁력은 바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도시의 고감도의 문화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부유한 도시로 만드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한편, 도시의 공공디자인과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사회의 선진화 정도에 비례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도시의 소프트웨어를 충족시켜주는 공공디자인이나 도시색채디자인이 유행처럼 나타난 이유도 도시문화를 즐기려는 우리 국민의 선진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도시방문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 변화되고 있다.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지 못했던 과거에 사람들은 오래 한 국가나 도시의 종교사원,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하여 그 도시의 전통적 아이덴티티를 찾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세대들은 전통적 '유물의 전시장' 보다 활력있게 '진화하는' '움직이는' 도시문화에서 그 가치를 찾고 있다. 최근 인기있는 도시의 비결인 스며져 있는 '색채디자인' 을 찾아보면





6

도시를 방문하는 흥미를 더해준다.

이렇듯 도시 색채디자인이 중요해진 배경은 바로 다채로운 영상이미지로 대화하고 다채로운 글로벌 상품 속에서 살고 있는 풍요한 영상세대들의 출현 때문이다. 그들은 필요(need)보다 욕구(want)를 충족시키거나 '자아표현(self-expression)'의 수단으로 제품을 찾는다. 이미지 언어로 소통하는 세대들에게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1차적 지표는 감성적 요소가 된다. 그들은 다만 제품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환경에서까지 감성적 가치를 찾는다. 이미지를 대변하는 시각언어 중 색채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제 1요인으로서 러브마크(love mark)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오감 중 시각 부분이 83-87%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70%가 컬러가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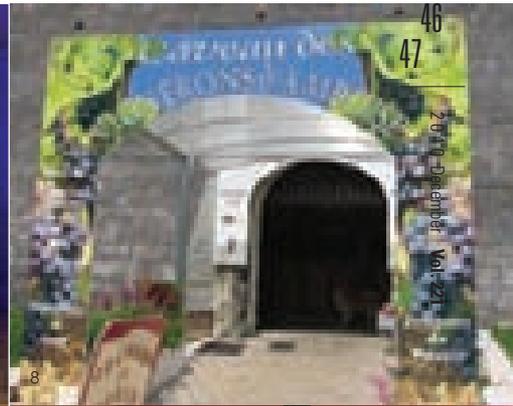
도시색채디자인은 도시의 러브마크가 되어 도시문

화의 개성적 특성을 부여한다. 더욱이 도료를 활용할 때 도시환경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어 경제적 투자 가치가 크기 때문에 색채는 낙후된 산업지역을 문화지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매체가 된다.

도시 색채디자인은 도시의 차별적인 문화환경을 성취시켜 개성적 도시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풍요한 도시, 나아가 풍요한 국가 이미지로 승화시켜 풍요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낸다. 그리고 색채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 기쁨과 풍요성을 부여하는 효율적 전략으로 떠오른다는 점에서 우리생활환경에서 우리문화를 풍요하게 하기 위해 색채문화를 멋지게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이혜주

(중앙대 생활문화산업연구소 소장, 한국브랜드문화학회 회장)



- 1,11. 과학도 색채문화와 함께 할 때 그 감성적 가치는 더해지며 어려운 과학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이곳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은 창의적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프랑스 파리 라빌라떼 과학문화관>
2. 거리의 공기가림막의 색채디자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감성적 풍격을 높여준다. <영국 런던>
- 3,4. 거친 돌로 이루어진 그리스 섬에 환경과 어우러진 바탕색에 다채로운 장식색으로 아름답게 꾸며 많은 관광객의 매력을 끌고 있다. <그리스 산토리니섬>
5. 도시의 공장과 낙후된 좁은 골목에 색채를 칠하면 우범을 방지하고 행복한 문화의 장소로 변화된다. <영국 버밍엄>
6. 우중충한 날씨의 아일랜드는 낙후된 건물에 단지 다채로운 색채를 칠해 지역색채문화를 활성화시켜 이를 즐기려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아일랜드 코크>
7. 카페같은 조영등을 활용하여 단순한 시멘트 건축물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창출해내고 있다. <독일 뮌헨>

8. 프랑스 전통지구인 르와르 고성지대에처칠 지루할 수 있는 전통건축물에 재미있는 색채디자인을 통해 관광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9. 우아한 색감을 자랑하는 드골공항도 다채로운 패션색채로 변화되고 있다. 소외되었던 화장실에 패션드로잉을 그려서 행복감을 부여하며 여행하는 재미를 더해준다.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
10. 전통 건물에 단순히 색채를 칠함으로써 로맨틱하고 즐거운 색채문화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중국 마카오>
12. 도시 상업거리는 도시색채문화의 핵을 이루고 있으며 특징적 스트리트문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매장의 색채는 도시를 거니는 즐거움을 부가시킬 뿐 아니라 상권을 구축하는 요체가 된다. <프랑스 파리>
13. 아름다운 컬러로 인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풍요한 문화를 즐기면서 정신적 충족감을 얻게 된다. <카르보로, 북캐롤라이나, 미국>



生活禮節

생활예절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자기관리 · 개인예절 (2)

1. 옷차림

가. 옷은 왜 입어야 하나?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衣食住)가 필수조건이다. 음식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지만, 옷은 입지 않더라도 그다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먹고 지는 것보다 옷을 중시해 의식주라고 표현한 까닭은 생명 유지 이외에 부끄러움이라는 예(禮)가 따르기 때문이다. 모든 생물 중에서 후천적(後天的)인 가공(加工)된 옷을 입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그것들의 생태(生態)를 보면 모두가 앞뿔을 바닥을 향해 시는데 사람만이 고추 서서 정면을 향해 산다. 그때 노출되는 중요한 곳(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복은 체온을 보전해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의복이 체온을 보전하는 역할 뿐이라면 한 여름에는 옷을 입지 않고 햇볕을 가리는 양산만 있으면 될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해수욕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옷차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예절의 옷차림새는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사람답게 옷을 입으려면 생활편의상 만부득이한 곳이 아니라면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나.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나?

① 옷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 새 옷이 좋은 것이 아니고 깨끗한 옷이 좋은 옷이다. 비록 헌 옷이라도 떨어진 곳을 깎고 더럽혀진 곳이 없게 정갈하게 입으면 인품이 돋보인다.

②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반듯하고 구김살이 없이 단정하게 입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 꿰어야 할 곳은 꿰고, 잠가야 할 곳은 잠그며, 속에 넣어 감춰야 할 곳은 감춰서 너털거리거나 필력이거나 벌어지지 않게 입어야 한다.

③ 일습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 와이셔츠를 입었으면 넥타이를 매야 하고, 남자가 한복으로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며, 한복바지에는 대님을 매야 한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옷차림은 그 교양을 의심하게 한다.

④ 사정에 맞게 입는다.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방호복(防護服)을 입고 사무종사자는 사무

복을 입으며, 근로를 할 때는 작업복을 입는다.

⑤ 의복의 용도에 맞게 입는다. 잠옷은 잠잘 때 입고 실내복은 방 안에서 입으며, 내복은 옷 속에 입는 것이다. 잠옷이나 속옷만 입거나 속옷이 밖으로 노출된 상태로 대인관계에 임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⑥ 장소와 행사에 맞춰 입는다. 잔치나 즐거운 행사 장소에는 현란한 색깔이나 디자인의 옷을 입고, 상가나 슬픈 장소에는 단조로운 디자인에 현란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

⑦ 나이와 계절에 맞게 입는다. 늙은 사람이 지나치게 짙은 원색이나 첨단적 디자인의 옷을 입으면 품위가 손상되고, 계절에 맞지 않게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 못한다.

⑧ 제복(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조직원은 제복을 입는다. 제복은 그 조직의 특성과 전문성 및 일체감을 위해서 마련된 의복이다. 그 조직에 속하면서 그 제복을 입지 않는 것은 그 조직원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⑨ 의복은 개성보다 어울림을 중시한다. 의복은 화장의 경우와 같이 자기 보호의 역할을 한다. 개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유별난 색깔이나 디자인의 옷을 입으면 위화감을 일으키고 소외된다. 당연히 어울림에 중점을 두어 친밀감 있는 색깔이나 디자인의 옷을 입어야 한다.

다. 옷은 불안하지 않게 입는다

옷을 입고도 몸을 추스르기가 불안하다면 그 옷은 잘못 입은 것이다. 특히 남녀 공히 노출벽(露出癖)이 심한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많다. 노출은 크게 직접(直接) 노출, 투시(透視) 노출, 밀착(密着) 노출, 감지(感知) 노출, 유혹(誘惑)·유시(誘視) 노출 등이 있다.

어느 것이 되었든 옷의 효용성과 기능을 무시한 성격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유인하는 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더불살이를 부정하고 기괴한 개성돌출로 남의 시선(視線)을 즐기는 괴벽(怪癖)을 가진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작란을 치면서 그것도 하나의 문화인양 꾀변(詭辯)으로 감싸기도 한다.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태(行態)를 말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옷을 입었으면 떳떳하고, 당당하고, 당연스럽고, 기거동작(起居動作)에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한복(韓服) 바로 입기

1) 한복은 한국의 고유한 옷이다

한복은 양복과 달리 완전한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우리의 옷이다. 남자의 바지·저고리와 여자의 치마·저고리는 기원과 유래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으나 마름새와 입는 방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유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예복으로 입는 도포(道袍)는 임진왜란 때에 선비들도 말을 타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효종실록(孝宗實錄)>과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 기록이 있고, 선비들이 머리에 쓰는 유건(儒巾)은 조선 성종(朝鮮 成宗) 때에 추계 윤효손(楸溪 尹孝孫, 1431-1503)이 세자의 관과 도포의 제도를 정하였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쓰게 하려고 유건을 만들었다고 그의 문집에 그림까지 곁들여 기록되었다.

두루마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에서 두루 입던 옷인데 1884년에 의복개혁을 하면서 대중화 하였고 1894년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예복으로 입도록 제도화한 우리의 옷이다. 이런 한복이 동작의 편리성과 재봉·관리의 불편 때문에 양복에 밀려 현재는 통상복의 자리에서 밀려나 예복화 하고 있다. 다행히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복고풍이 일어 한복을 입는 사람이 늘고 있다.

2) 한복을 바르게 입는 법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이 양복·양장에 밀려 예복화(禮服化)되고 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 넓은 저고리 소매와 바지가랑이, 긴 옷고름 등이 주체스러워서 몸에 붙고 끈이 적은 양복이나 양장이 생활 복으로 자리 잡는 것은 생활여건의 변화로 필연적인 추이라 하겠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 모두 넓은 치마형태의 겹옷을 입다가 행동의 편리를 위해 남자는 바지를 입었지만 여자는 그대로 치마를 입었고, 이제 여자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바지를 겹옷으로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의 아름다움과 복식문화를 저버리기가 아쉬워서인지 명절이나 의식행사에서는 여전히 한복이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주 입지 않아서인지 한복을 바르게 입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인의 한복을 한국인이 바르게 입기 위해 몇 가지 알아

보기로 한다.

(1) 길복(吉服)과 흉복(凶服)의 차이점: 남녀 공히 한복의 여밈은 양복·양장과 달라서 산 사람의 옷은 길복(吉服)이라 하여 오른 쪽을 먼저 여미는 우임이고, 죽은 사람의 옷(?衣)은 흉복(凶服)이라 하여 왼쪽을 먼저 여미는 좌임(左?)이다.

서양의 옷은 생사 관계없이 남자의 양복은 오른쪽을 먼저 여미는 우임이고, 여자의 양장 옷은 왼쪽을 먼저 여미는 좌임인 것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바지의 좌우(左右, 앞뒤): 바지가 앞뒤가 없는 줄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바지는 앞뒤가 있다. 바지 가랑이의 짧은 사폭(斜幅)이 왼쪽 다리 쪽으로 가게 입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지를 오른쪽을 먼저 여미는 우임(右?)으로 입는데 짧은 사폭이 왼쪽으로 가야 허벅지 중간에 걸쳐 보기 흉한 사폭의 이음매를 바지허리를 여며서 감출 수 있어서이다.

(3) 두루마기(周衣)는 남녀가 다르다: 두루마기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정장(正裝)이고, 여자에게는 방한복(防寒服)이다. 그러므로 한복을 입으려면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고, 여자는 두루마기를 입지 않아야 한다.

남자는 원칙적으로 잠잘 때 외에는 두루마기를 벗지 않는 것이고, 여자는 밖에서는 두루마기를 입더라도 실내나 의식행사에 참석할 때는 벗어야 한다. 여자가 의식행사에서 두루마기를 입으면 신부가 웨딩드레스 위에 코트를 끼워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남녀 한복 정장

(4) 목도리는 남녀 모두 방한장구이다: 남녀 모두 실내나 의식행사에서는 목도리를 두르면 안 된다. 방한 장구이기 때문에 실외에서나 사용하는 것이다.

(5) 모자와 장갑은 의례용이 아니면 벗어야 한다: 의례용 모자나 장갑이 아니면 실내에 들어갈 때나 의식행사에 참석할 때는 벗어야 한다. 요사이 실내 또는 의식행사장이나 심지어는 교실·강의실 등에도 모자를 쓰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야 할 일이다.

3) 남자의 한복

(1) 남자 한복의 종류

남자의 한복은 많은 변천을 해서 요사이의 남자한복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① 바지 (대넒 포함, 여름에는 고의)
- ② 저고리 (여름에는 적삼 또는 등거리)
- ③ 조끼 (등거리를 입으면 안 입는다.)
- ④ 마고자 (여름에는 안 입는다.)
- ⑤ 두루마기

(2) 남자 한복 입는 순서

- ①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은 다음에 대넒을 맨다.(바지의 짧은 사폭이 왼쪽 허벅지로 가게 입는다. 바지허리는 우임으로 여민다)
- ②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조끼를 입는다.
- ③ 마고자를 입고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바지입고 대넒 매기



허리띠(허리여밈은 右?이다)



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3) 대넒 매기, 그림으로 보기



1



2



3



4



5



6



7



8



9

(4) 옷고름 매기, 그림으로 보기



1



2



3



4



5

4) 여자의 한복

(1) 여자 한복의 종류

여자의 한복도 많은 변천을 했다. 요사이 일반적으로 여자 한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바지 (옛날에는 다리속곳, 속속곳, 단속곳, 고쟁이 등이 있었다)
- ② 속치마 ③ 속저고리 ④ 버선
- ⑤ 치마 ⑥ 저고리 ⑦ 배자(겨울에만 입는다.)
- ⑧ 두루마기(외출시에만 입는다.)

(2) 여자 한복 입는 순서

- ① 속옷 ② 속치마 ③ 속저고리
- ④ 버선(양쪽 수늬가 안쪽을 향하게)
- ⑤ 치마(오른 쪽을 먼저 여미고, 그 위에 왼 쪽 쪽을 여민다.)
- ⑥ 저고리(옷고름 매는 방법은 남자의 저거리 고름과 같이 맨다.)
- ⑦ 배자(겨울에만 입는다. ⑧ 외출 시에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버선을 신고



치마 오른 쪽이 안으로



저고리를 입는다



배자를 입고



남녀 두루마기 차림

문화원이모저모 NEWS

강동문화원

문화유적답사 떠나

_가을빛에 곱게 물든 단풍과 맑은 하늘...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에서 10월 21일(목) 제6기 강동문화대학수강생, 문화원 회원 100여명과 함께 청주지역 고인쇄박물관, 상당산성, 청남대로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다. 첫코스로 고인쇄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직지를 찍은 곳으로서 그 가치가 중요한 유적인 흥덕사지를 보면서 이런 위대한 세계사적 발명의 중심에 우리민족이 있다는 것에 큰 자긍심과 뛰어난 선조들의 창의력에 감동을 받았다.

두 번째 코스로 상당산성은 임진왜란 때에 일부 고쳤으며, 숙종 42년(1716)에 돌로 다시 쌓은 것이다. 성벽은 네모나게 다듬은 화강암으로 쌓았으며, 성 안에 5개의 연못과 3개의 사찰, 관청건물, 창고 등이 있었는데, 현재는 문과 처성이 남아있다. 가을빛에 곱게 물든 단풍과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 속에서 문화적 향취와 고고한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코스로 대청호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전직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했다. 대통령역사 박물관, 하늘정원, 돌담, 대통령광장, 메타세쿼이아 길 등 그저 아름답다고만 하기에 가슴이 멎을 만큼이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살아있는 문화와 예술을 느낄 기회를 수강생, 문화원회원들 모두에게 제공한 것 같아 한결 마음이 가볍다.

예산문화원

제21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예산문화원(원장 김시운)은 10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제21회 추사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하여, 친척 가족은 물론이고 한국의 내로라하는 서예 대가들이 추사김정희 선생의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고 뜻을 기렸다.

9일은 전국 청소년들의 서예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듯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휘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면 진지함이 성인들의 침착함을 보고 있는 듯 느껴졌다. 청소년부 대상수상자로는 경기도 부천 원미구의 송미고 3학년 이은정학생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이은정 학생 외에 다른 모든 학생들이 뛰어난 실력을 보여 심사를 하기 매우 어려웠다든 심사위원장의 심사평도 있었다.

대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이른날의 성인 휘호대회는 그야말로 전국 서예인들의 큰 잔치였다. 추사 선생 추모제례도 거행되었다. 휘호대회를 치르기 전 추사 선생의 묘소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대회를 시작한다는 취지이다. 이 대회에 참가하여 정해진 수상점수를 합하여 특정점수 이상이 되면 초대작가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역대 초대작가들의 만남도 있었다. 그리고, 초대작가전과 역대 장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장소가 마련되었고, 특히 대회가 추사 선생의 생가를 배경으로 치러져 큰 호평을 받았다. 참가자 중 최연소 참가자는 한문에 이운정 학생으로 92년생(만18세)이고 특선을 수상하였다. 최고령 참가자는 1924년생(만86세)으로 추사체에 출전했지만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하였다.

이튿날 성인부 휘호대회 한글, 한문, 문인화, 추사체까지 총 4분야에 걸쳐 400여명의 전국 서예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장원의 영광은 경기도 안양에 사는 한문 분야의 이영욱씨에게로 돌아갔다. 이씨는 수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대회의 위상이 큰 만큼 상금도 크고 또한 상도 과거 문화부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되었다. 예산문화원 주최로 치러진 이 대회는 추사 선생을 통하여 예산의 문화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대표적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제 부흥군 위령제 열려

찬란한 백제문화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 바쳤던 흑치상지 장군의 얼을 받들고 부흥군의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가 10월 31일 열렸고, 최승우 예산군수를 비롯하여 예산지역의 많은 식구들이 임존성 위령제 및 등반대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숙명여대의 정재만 교수가 부흥군의 넋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를 맡아 제자들과 함께 침착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지역의 시물놀이 패도 참가하여 뜻 깊은 하루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냈다.

예산문화원은 과거 진행해오다가 잠시 잊혀져갈 뻔 했던 위령제를 완벽히 재현하고 발굴해낸 자료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꾸준히 찾아간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들 또한 우리 백제가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어 뜻 깊은 계기가 되었으며, 임존성이 이렇게 완벽히 복원되어가는 것을 볼 때에 백제인으로서의 문화자부심을 느낀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었다. 전날은 연기문화원에서도 답사를 와서 하루 동안 이곳을 방문하였다.

수십여명의 인원과 연기문화원 사무국장은 백제의 성 유래지를 답사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예산의 임존성같이 훌륭한 성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도 있었다.

문경문화원

문경의 역사와 문화 골든벨을 울려라!
_ '2010 문경 출사동이 가족 골든벨'



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임창호)과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이 공동 주최한 '2010 문경 출사동이 가족 골든벨'이 성황리에 열렸다. 2010년 10월 29일 가을의 끝 자락에 문경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이 행사는 문경시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미리 실시한 학교별 예선 통과 100가족과 응원 학생, 내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현한근 원장은 '한 해의 결실이 알알이 영글어 가는 오늘, 문경시 100명의 지역 인재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내 고장 문경 알기 퀴즈대회 '2010 문경 출사동이 가족 골든벨'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문경문화원이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긴다.'며, '진작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열지 못한 것이 아쉬우며, 오늘을 시작으로 더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임창호 교육장은 '이 행사는 내 고장 문경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보존의식을 키우고, 우리지역의 특산물과 훌륭한 인물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말하고, '따라서 이 행사는 문경의 어린이들이 문경시민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교양교육인 동시에, 어린이들이 장차 더 넓은 세계로 나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고향을 잊지 않고 지역에 늘 관심을 가지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의 건인치가 되게 하는 미래를 위한 행사라.' 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행사에는 문경시내 각급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교사를 비롯하여, 이상일 문경문화원 부원장, 박성도 문경시의회 부의장, 김지현, 김희숙, 안광일, 탁대학 문경시의원, 김길영 문경시주민생활지원국장, 권혁진 이한성국회의원 비서관, 이육 문경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한학수 성균관 청년유도회 문경지부장, 최일영 문경유림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 행사는 문경교육지원청 현낙길 교육지원과장과 조재국 장학사가 주도로 기획하고, 준비하여 청송을 받았다. 이날 골든벨을 울린 학생은 호서남초

등학교 5학년 엄부경 학생가족으로서 처음부터 치분한 가운데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무난히 골든벨 문제를 맞춰 '2010 문경 출사동이 골든벨' 으뜸 출사동이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고, 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밖에도 끝까지 선전을 펼친 모전초등학교 박원준, 김기현, 이수민, 김병학, 신성은, 문경초등학교 민정아, 박민호, 점촌중앙 초등학교 한성현, 가은 초등학교 김경민 등 8가족이 버금출사동이 상을 수상하고, 각각 5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꿀떡고개에 꿀떡을 판다!



문경문화원은 11월 7일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고모산성 꿀떡고개에서 신현리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문화 전승을 위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고모산성 꿀떡고개에서 팔았던 옛날 꿀떡을 마을 어르신들이 재현, 관광객들에게 팔면서, 어르신들의 생활문화가 현실적으로 전승이 가능한지 가능해보는 일이었다.

고모산성에는 일요일을 맞아 단풍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찾아 왔고, 신현리 어르신들이 준비한 먹을거리인 꿀떡과 막걸리, 정구지적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더한 마을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공연과 다듬이 체험 등은 먹는 재미에 고모산성의 이야기를 더하여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고모산성 꿀떡 고개는 영남대로 상의 험로에 위치하며, 국기명승 제31호로 지정되어 있는 '토끼바리'에 이어져 있고,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문화유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고갯마루에 서면 문경새재 험로가 한 눈에 보이며, 고개 밑에 있는 신현리는 옛 마성면의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광신촌으로서 문경지역 근현대사의 영육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마다 책 한 권 이상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으며, 많은 생활도구들을 전해 오고 있다.

사진하나로 알려지는 문경!

_ 제1회 문경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성료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문경문화원과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지부장 김철수)는 11월 15일 10시 영강문화센터에서 제1회 문경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공개심사를 갖고, 61편의 아름다운 문경사진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문경시가 문경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여, 문경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열린 제1회 문경관광사진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안내하고, 홍보를 하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였으며, 전국의 사진작가 124명이 530여점의 문경사진을 공모하였다. 문경의 자연경관, 축제, 체험관광, 문화유적, 생활환경, 여가활동 등 문경시의 전 분야에 걸쳐 촬영한 사진(11인치 × 14인치 칼라 또는 흑백의 디지털카메라800만 화소 이상)이었다. 최고상인 금상에는 문경의 운태영씨 작품 '경천호의 봄' 이 선정되었고, 은상에는 상주시 권영국씨 작품 '춧대바위의 설경' 과 영주시 김석태씨 작품 '용추계곡의 가을' 이, 동상에는 대구시 이수민씨 '김용사 전경', 고양시 이순자씨의 작품 '환희' 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날 수상자 상금은 금상에 150만원, 은상에 각 50만원, 동상에 각 30만원이다. 문경시는 12월 중에 수상작품 전시회와 수상자 시상식을 가지며, 사진첩을 제작하고, 향후 문경시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문경에서 영남옛길 컬처텔러 양성



문경문화원은 11월 11~12일 이틀간 STX문경리조트에서 '2010지역인재육성사업' 영남 옛길 컬처텔러과정의 수강생 컬처텔러 콘테스트와 세미나, 수료식을 가졌다. 첫째 날은 컬처텔러 콘테스트와 세미나를 열었으며, 둘째 날은 수강생들의 소감 발표와 수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컬처텔러 콘테스트에서는 수강생들이 미리 주어진 과제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발표하였고, 이를 수강생들이 직접 평가하여 스스로 피드백이 되도록 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스토리텔링 구현사례' 라는 제목으로 김정학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총감독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현한근 원장과 대구경북연구원 임기복 책임연구원,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료식에서는 20명 전원에게 예쁜 족자로 만든 수료증과 한지공예 접시가 주어졌으며, 수강생들은 컬처텔러들의 옛길 이야기 라는 결과물을 책자로 만들어 문경문화원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날 전 과정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명숙, 김귀남, 임명화씨가 수상을 하였으며, 수강생 모두가 족석에서 동창회를 구성,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다.

남해문화원

제14회 남해문화의 날 개최



남해문화원(원장 이호균)은 올해로 14년째 남해문화의 날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문화대상, 친절봉사상, 남해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군내 유치부 초·중·고등학교·일반인들의 문예경진대회로 치러진 이번행사는 글짓기, 그림그리기, 웅변, 서예, 동요부르기, 한시백일장 등 1,000명의 참가자와 함께 그동안의 같고 닮은 기량을 발휘하였고, 이호균원장은 “문화는 공기처럼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며 “대중문화에선 문화라는 글자를 떼놓을 수 없듯이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씩은 마음의 여유를 갖자”고 말하였다.

이날 서예대회장에서는 10살짜리 초등학생과 90이 넘는 할아버지가 함께 붓에 먹을 묻혀 글을 써내려가는 모습에 절로 숙연해 지는 감동을 주었다.

경남도지사기 어린신 농악경연대회 남해화전농악 대상 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가 주최한 제2회 경상남도지사기 어린신 농악경연대회에서 남해문화원 어린신들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역 특성상 2모작을 하는 남해는 낮에는 들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농악연습을 하였으며,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빠르고 경쾌한 12채 가락은 반복되지 않은 동작으로 흥이 절로나게 하며 상쇠의 놀음과 장구가락에 맞춰 상모를 돌리는 것이 특이하다는 평을 받았다. 남해화전농악은 제42회 개천예술제에서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겨레의 문화적 삶의 공간, 효창원 등 답사

남해문화원 2010년 어르신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인 “꽃밭메아리마을” 사랑방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마을주민들의 공동공간이 마을회관에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흑백사진 전시 및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한



편의 드라마를 제작하였으며, 아생화가 심어진 마실길 조성과, 마늘에 대한 희노애락을 연극으로 만들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해군수님이 직접 마을주민들을 격려하고 계속해서 마을역사관 만들기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남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및 문화탐방교실은 전국 권역별 문화단사를 11월 3-4일 1박2일 동안 용인민속촌, 수원화성, 효창원,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기념관 등 애국지사의 기념관을 답사하고 참배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문화를 가진 제주·민주·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겨레의 지도자들인 그들에 대한 애국심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백범 김구 선생의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는 말씀을 가슴에 담았다

안동문화원

권오신씨, KBS 퀴즈대한민국
제47대 퀴즈 영웅으로 등극



안동문화원 회원이면서 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회원, 그리고 문화원의 각종 강좌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오신씨가 지난 11월 7일 KBS의 퀴즈 대한민국

에서 영예의 퀴즈영웅으로 등극하였다. 권오신씨는 약 30여 년간 중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4년 명예퇴직하고 안동 문화원의 여러 가지 강좌를 담당하는 한편, 향토사연구소에서 안동의 인물, 설화 등 향토사료를 수집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열성을 보여 왔다.



각 시대 역사를 꿰고 있고 한시 번역에도 조예가 깊은 권오신씨는 퀴즈 마지막 문제에서 역사를 선택하여 조선시대 최초로 홍문관·예문관 양관제학을 지내고 조선 전기 문신으로 45년간 세종·문종·단종·세조·성종 등 여섯 임금을 섬긴 사람이 누구냐는 문제가 나와 처음에 신숙주와 서거정이 떠올랐는데, 다음에 제시한 '금빛은 수양버들에 들고/ 옥빛은 매화를 떠나는데/ 작은 연못 새 빛물은 이기보다 푸르다'는 시 한 편을 듣고 서거정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권오신씨는 퀴즈영웅이 된 뒤 교사·시인 등 여러 사회활동보다 문화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 말하고, 문화원사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문화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 주었다. 또한 퀴즈대회에서는 '안동선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는데, '안동선비는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붙여준 이름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 나로서는 선비가 될 수 없고, 다만 안동사람일 뿐'이라며 겸손해 했다.

권오신씨가 쓴 책으로는 『安東人物抄索引』, 『안동의 설화(공저)』, 『다시 쓰는 안동의 옛이야기』, 『시집』네 생각이』 등이 있다.

제2회 안동 사투리경연대회



안동문화원(원장 이재춘)은 11월 11일 안동시민회관에서 제2회 사투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앞에서 예선을 거친 21명(단체)의 출연자가 열띤 경쟁을 벌여, 학생부는 '무신 날'이란 제목으로 경연한 배경남 외 3명, 일반부는 '비보 만덕이 아이낳기에 한 뉘하다'란 제목으로 경연한 김정인씨가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하회마을과 부용지애'란 제목으로 출연한 김수연 외 1명이 학생부 우수상을, '안동말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출연한 류응하씨가 일반부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이밖에 장려상, 인기상 등 총 15명이 입상하였다

이재춘 원장은 인사말에서 다른 지방과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어휘나 종결어미를 지니고 있으며 말투는 저속하지 않고 점잖은 품격을 지니고 있는 안동말은 안동사람을 안동사람답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해 왔다. 이 대회를 계기로 안동 말이 더욱 정겹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겨지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언론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MBC의 '전국시대', KBS의 '생방송 오늘' 등의 전국 프로와 안동인터넷뉴스, 매일신문 등 지방 언론에서는 대회 모습과 입상자들의 대본원고도 함께 실는 친절함을 보여주었다.

마산문화원

영화자료관 희귀한 영화포스터 전시



2007년 10월 개관한 마산문화원 영화자료관은 30석의 관람석과 영화비디오, DVD, 영화포스터, 영화서적 등 수천 점의 영화자료가 상설 전시되어 있다. 영화연구가 이승기 선생이 평생 모은 수많은 영화자료가 소장되어 있어 영화마니아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제16회 마산문화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자료관에서는 “희귀한 제목의 영화 포스터 전시회” 를 열고 있어 평소 접하기 힘든 추억의 영화포스터를 통해 영화예술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명소가 되고 있다. 아울러 영화자료관에서는 추억의 영화를 정기상영(월,화,목 14:00)하며 단체신청시는 별도 상영도 가능하다.

구분	필름	시나리오	포스터	홍보용전단	스틸사진
수량	38편	51권	3,436매	5,704장	300종

구분	DVD	비디오Tape	비디오CD	영화장서	영화잡지
수량	1,200편	3,900편	75편	700권	2,400권

구분	정부간행자료보도자료	映畵祭자료	LP,음악CD	특별자료	
수량	110권	50권	400종	30종	200여점

포천문화원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학술발표회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2010년도 학술연구발표회”를 11월 12일, 포천유림회관에서 문화원 임·회원, 관내 유림 및 지도층 인사, 관계 문중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를 주제로 강남대학교 홍순석 교수의 「고려말에 절의를 지킨 명신 성여완 선생」, 성당제 문학박사의 「백강 이경여 선생의 경륜과 사상」, 대진대학교 사학과 박경자 교수의 「위정척사론자 중암 김평묵 선생의 생애와 사상」 등 사학계의 저명한 세 분의 교수가 참여하여 집중 연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만구 원장은 “우리 포천은 예로부터 나라를 빛내신 위인, 선열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이고, 충절의 고장으로, 이러한 우리

포천의 선현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학문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좀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선양하고 계승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운기 포천시 경제생활지원국장, 김종천 포천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열리는 학술연구발표회가 우리 고장에서 배출된 훌륭한 분들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문화원은 이번 학술연구발표회 연구 논문들을 모아 논문집으로 발간, 참가자 및 포천시민들에게 배포하여 포천을 빛낸 인물에 대한 역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제5회 가족 시 낭송 경연대회 _ 늦가을 주말을 시로 물들여



포천문화원이 주최하고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웅), 포천문인협회(회장 이중희)에서 후원한 제5회 가족 시 낭송 경연대회가 20일 이철웅 교육장, 이중희 회장 등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문화원 임·회원 등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여성회관 만찬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가족 그리고 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시낭송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 행사로 15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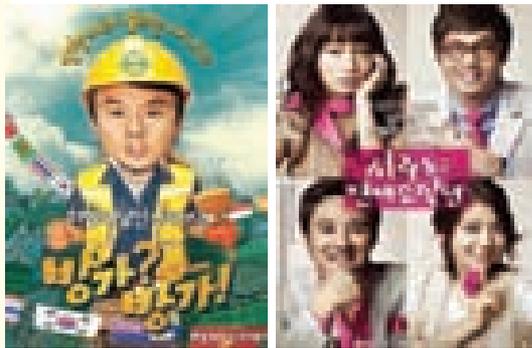
이날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마르고 삭막한 현실 속에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 앉아 시를 낭송하며 대화의 꽃을 피워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오늘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시를 사랑하고 애송하는 풍토가 더욱 진작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연 결과 동남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정다솔학생 가족이 “목마와 숙녀”를 낭송하여 대상의 영예와 함께 포천시장상과 트로피를 수여 받았으며, 금상(포천시의회 의장상)은 신읍동 조금자 가족, 은상(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상)에는 신북면 윤영순 가족, 신읍동 김민서 가족이, 동상에는 이연우군 가족 등 2가족이 수상했으며, 장려상 2가족 이외 화목상 3가족, 다복상 2가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족, 행복상 2가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다문화가족이 참가하여 더욱 뜻있는 시간이 되었다. 포천문화원 가족시낭송 경연대회는 매년 11월 중순에 개최되며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전화 :532-5015,5055)

양천문화원

다채로운 문화행사 가져



양천문화원에서는 문화의 향기 가득한 가을을 맞이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2일(화)에는 회원 120여명이 제4차 문화유적지 탐방을 대숲의 고장인 전남 담양으로 다녀왔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나 담양 일대의 문화 유적지를 돌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죽녹원, 소쇄원 등을 탐방했다. 이어서 제5차 문화유적지 탐방은 11월 24일(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적이 살아 숨쉬는 강원도 영월로 문화탐방을 떠나 선돌, 장릉, 청령포, 한반도 지형, 고씨동굴 등을 탐방했다. 또 양천문화원의 특징 있는 사업인 우수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지역 구민을 위한 영상 문화 서비스의 일환으로 11월 12일 금요일부터 11월 14일 일요일까지 약 삼 일간 11월 첫 번째 우수영화로 선정된 <시라노: 연애조작단>을 양천문

화회관 대극장에서 상영하여 극장을 찾은 구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11월 26일 부터 11월 28일 까지 사흘간 11월 두 번째 우수영화로 선정된 <방가! 방가!>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상영해서 시민들의 여가에 즐거움을 선사했다.

11월 29일(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양천문화원의 양천문화대학 수강생들이 그간 익혀온 기량을 뽐내며 지역구민과 함께하는 행사인 제11회 양천문화대학 종합예술제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했다.

성남문화원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시연회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10월 16일 오후 2시, 남한산성 놀이마당에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지경 다지기)'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무술은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였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을 일컫는 마을 이름이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집을 새로 지을 때 집터를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에서 부르던 노동요를 뜻한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 1982년故 김영환 옹 등 마을 주민을 비롯해 방영기(중요무형문화재 19호)씨와 최종민(국악인)씨 등 전문가 고증을 통해 복원된 '집터 다지는 소리'가 그대로 재현됐다.

이 날, 식전행사로 성남농협 주부농약단의 '길놀이', '고사', '비나리',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시연' (동아줄 꼬는 소리, 성토, 지경다지기, 휘모리 등), 뒷풀이 한미당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부의장 지관근 등 500여명의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은 "집터 다지는 소리는 마을 주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며 특색있게 발달하여 왔다"며 "이번 시연회를 통해 성남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둔촌 이야기 자리(일곱번째)

_ 풍성한 문화잔치로 지역인물 추앙



성남문화원 부설 둔촌연구회는, 지난 10월 22일(음력 9월 보름) 오후 6시, 고려 말 대학자 광주이씨의 중시조 둔촌 이 집(李集, 1327~1387, 경기도 기념물 제219호) 선생의 효행과 충절심을 기리는 둔촌 이야기 자리 일곱 번째, '가을, 등근 날 밤에' 행사를 하대원동 소재 둔촌 사당 '추모재'에서 개최했다. 둔촌선생의 정신적 교훈을 현대사회에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음력 보름날 풍성한 문화잔치로 개최한 이날 '둔촌이야기 자리, 일곱 번째' 행사는 한춘섭 문화원장의 개회사, 이해재 광주이씨 대종회 도유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소리향 국악실내악단이 '방향', 국악가요 '산도개비', '소금장수'를 연주했고, 성남무용단의 김중해 단장과 정경미 단원의 전통무용 사랑가, 성남시립합창단의 '큰 기침소리', '저 구름 흘러가는곳', 한춘섭 작시 '탄천의 눈물'을 중창으로 선보였으며, 둔촌 선생 작 '秋懷(추회)'를 시립합창단 안효영 단원이 낭송했다.

특히 이번 이야기 자리는 '2010 둔촌 백일장 입상작' '둔촌 할아버지', '둔촌 큰 얼굴'을 중국 심양시 교육국 이종태 처장과, 심양시 교육연구실 박영철 주임이 낭송했으며, 마지막 순서로 한춘섭 문화원장의 '산책길에서 만나는 둔촌'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한춘섭 원장은 "성남시의 큰 인물을 기려나가는 '둔촌이야기 자리' 행사를 개최했다 며, '둔촌문화제', '둔촌백일장(한·중)' 행사 확대, 둔촌대로 도로명 개칭 등, 앞으로도 우리 고장을 대표성 지닌 둔촌 사랑' 선양사업을 다양하게 전개 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성남 오리뜰 농악' 재현 공연 개최

성남문화원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성남 오리뜰 농악' 재현 공연을 성남농악보존협회(회장 강승호)와 함께 지난 10월 24일 오후2시 분당 율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오리뜰'은 분당구 구미동의 옛 지명인 광주군 낙성면 구미리의 평야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오리뜰 농악'은 1940년 대부터 70년대 말까지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농번기와 농한기를 가리지 않고 전성기를 누리다 1989년 분당신도

시 개발로 한때 지취를 감추었다.



지역 내 전통놀이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던 성남문화원과 성남농악보존협회는, 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예술 복원 시연사업'에 오리뜰 농악이 선정되어 재현공연에 성공했고, 이후 경기도 민속예술 축제 등에 참가하며 우수 입상하는 영광을 갖고, 지역 문화행사에 축하공연단으로 널리 소개되는 계기를 갖게 됐다. 이날 행사는 '길놀이', '설장구', '쇠놀이', '버꾸놀이'와 참석한 관객과 함께하는 마당으로 흥겨운 야외공연이 진행됐다. 한춘섭 원장은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전승 사업의 일환으로,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전통 민속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사업을 통해 성남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고 밝혔다.

향토 유적지순례(7차)



지난 11월 2일~3일(1박 2일),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2010년 특색사업으로 마련한 '2010, 제7차 향토유적지 순례'를 경주일대로 다녀왔다. 37명의 성남시민들이 모여, 첫째 날은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양동민속마을, 분황사, 황룡사 9층 목탑지를 둘째 날은 감은사, 대왕암, 감포시장, 경주읍성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됐다. 유종준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의 자세한 문화해설로 진행된 이번 유적지 순례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를 통해 우리 민족이 남긴 세계에 자랑할 위대한 문화유적을 보고, 신라의 문화가 왜 찬란했는지 생각해보면서, 도처에 널려있는 문화유적을 통해 행복을 얻고 아름다운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재임 원장

**김종 광주광역시지회장(시인),
'고운 최치원 문학상' 대상 수상**

신라시대에 중국을 압도한 대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제2회 고운 최치원 문학상' 에 광주광역시지회장 김종 시인이 45편의 시화를 모은 '그대에게 가는 연습' 으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리가 바라보지만 보이지 않는 허공을 테마로 하여 그 속에서 우주세계의 개성들이 독특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시 속에서 선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적인 미감으로 서정성 짙은 언어와 직접 그린 화폭에서 특유의 색채감과 자연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색다른 만남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대 김천혜 명예교수를 비롯한 최치원 문학상 운영위원 6명의 전원일치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김종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어른이 될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러운 일이 상 받는 일이다"면서 "결국, 상을 받는 것으로 어른 되는 일을 포기한 셈이어서 두근두근 어른이 못될 바엔 독심 먹고 좋은 작품을 쓰고 그리겠다"며, 앞으로 창작 활동에 더욱 매진할 각오를 밝혔다. 그동안 10권의 시집으로 거둔 문학적 성취뿐 아니라 미술작품을 통해서도 자신의 예술적 열정과 세상과 인간에 대한 부단한 탐구정신을 펼쳐왔다.

이밖에 현산문학상, 민족시가 대상, 새천년한국문학대상, 영광문학대상, 광주시민대상(2007, 예술부문)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리문화원 원장
김문경**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AMP 수료
대한민국 금탑산업훈장 수상
대한민국 산업포장수상 (2005.6.29)
대통령 표창 제132632호 (2001.6.28)
구리시 재향군인회 (2대~5대)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명예회장 (현)
원일종합건설 (주) 대표이사 회장 (현)
임기 | 2011.1.1 - 2014.12.31

문화원 소식

서울 강서문화원 사무국장 김성암

1952년 6월 16일 생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기업평가론 강사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
임용일자 | 2010년 10월 18일

서울 양천문화원 사무국장 우형찬

1968년 2월 25일 생
(전) 경기방송 PD
임용일자 | 2010년 11월 1일자

알림

월간 <우리문화> 원고 모집

<우리문화>에서는 독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화원 이모저모에 실을 지방문화원 행사, 문화 관련 칼럼, 옛날 사진, 시, 그림 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마감 | 매 월 15일까지

담당 | 문선희 팀장 (e-mail_ lune20@kccf.or.kr)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디딤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